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대표전화 |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 kjc140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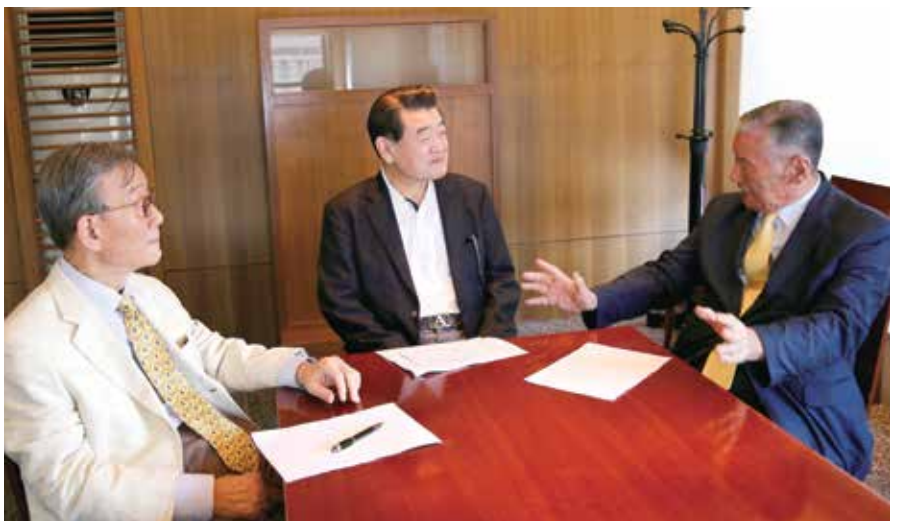
주요활동
- 언론인 복지 · 후생 · 친목
- 언론관계 연구 · 출판
- 언론상 시상
- 언론문화 창달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10 2016년 10월 1일(토) 제 367 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북에선 핵 폭발…남쪽은 핵 분열

북핵과 우리의 대응 긴급 좌담



김정은의 '핵장난은 자멸' 임을 경고하는 긴급 원로좌담회. 왼쪽부터 노재봉 전 총리, 이병대 회장, 남시욱 교수.

지금까지 대북유화정책 · 북핵저지 모두 실패
우리 국민 북핵위협 불감증도 위험수준 넘어

북한 5차 핵실험 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론과 함께 자위적 차원의 대북 선제타격 내지 예방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전 국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언론인회는 9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를 초청, 이병대 회장의 사회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대 회장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내부는 지금 북핵 방어의 최소한의 수단인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소모적인 국론분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고, 정부도 실전배치 단계에 이른 북핵의 심각성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할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회장을 질타했다.

이에 노 전 총리는 "핵무기는 북한이 만들고 핵분열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고,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각오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총리는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 협정 폐기 선언과 함께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절대 무기의 개발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한에게 북한이 핵으로 장난치면 '끝장 난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총리는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열쇠는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해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국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압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총리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외곽 방위선을 확대, 한반도까지 동중국해 영향권에 넣고 궁극적으로 동해를 잡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이제 옛 '애치슨 라인'은 '시진핑(習近平) 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시욱 교수는 "1970년부터 남북 경제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밀리자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평화적 사용을 위해 도입한 원자력 기술을 1980년대부터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개발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북한 핵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좌담은 중국이 수천년간 엠파이어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구시대의 제국 외교를 탈피하지 못하고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신강-위그르 소수민족 문제 등도 중국의 구시대적 제국 외교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남 교수는 "최근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초선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우리의 사대주의적 후진외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크다"고 말하고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등 강대국에 큰소리치면서 국운을 개척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면〉

알 림

참여하는 언론 600인의 소리
'大韓言論' 제호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600여 회우와 함께 만드는 회보'가 되도록 〈대한언론〉 제작에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大韓言論〉 제호(題號)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① 회우들 가운데 제호가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예컨대 'THE PEN'등 아예 다른 제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우님의 의견을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② 현재 회보의 이념적 자세는 중립적 보수방향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에서 우리의 자세정립에 대한 회우님의 의견이 있으면 덧붙여 알려주십시오.

2. 참여하는 언론, 6백인의 소리 〈대한언론〉은 600회우가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회우님들의 시사 논평, 의견, 수필, 기행문을 비롯해 회우들의 동정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회우님의 동정은 회우들이 모두 궁금해하나 알지 못해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병대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편집위원)

9·28 이전의 결혼계절

"이제 허리 펼수 있으려나!"

긴급 좌담

핵 가지고 장난치면 끝장난다

유사시 자위차원 선제타격 할 수도

북핵과 우리의 대응

노 재 봉 전 총리

이 병 대 회장

남 시 욱 교수

참석자

노재봉 (전 국무총리·서울대 명예교수)

남시욱 (본회 회우·세종대 석좌교수·전 문화일보 사장)

이병대 (사회 : 본회 회장)

때 : 2016년 9월 19일 곳 : 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정리 : 서옥식·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사진 :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사회: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이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는 유엔의 대북 강력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결국 북핵문제는 우리가 북한에 굴종해 북핵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핵을 놔두고 무력화하는 방법,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완전히 없애는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핵 대응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노재봉: 핵무기는 북이 만들고, 핵분열(북핵 대응방안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 · 갈등 현상)은 남한에서 한다.

남시욱: 핵분열(원자탄)이든 핵융합(수소탄)이든 모두 북한에서 했다.

노재봉: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리력이 동원되는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비군사적 외교 수단으로 대립 관계를 해소해 보려는 노력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내놓은 것이 핵개발이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블록 대(對) 블록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두 집단의 한쪽은 한국 · 미국 · 일본이고, 다른 한쪽은 중국 · 러시아 · 북한이다.

중국이 G2라고 하나 아직은 미국에 대적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외곽 방위선을 확대, 한반도까지 동지나해 영향권에 넣고 궁극적으로 동해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옛 '애치슨 라인'은 '시진핑(習近平) 라인'이 되고 말았다.

시진핑 부부가 2014년 7월 3일 한국을 방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 것에 대해 시진핑은 한국이 자신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우리는 중국에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체제가 다른 블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사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동질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어서 협상과 대화는 어렵다.

우리 언론에서 "이제 군사적 전쟁은 끝나고 경제전쟁시대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유화정책인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 유화정책은 이질적인 체제의 국가 간에는 성공한 예가 드물다. 이는 국제정치적 전략개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시욱: 오는 11월의 미국 대선에서 만약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내년 봄쯤이면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일대 회오리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대선결과에 따라 북한 핵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때까지 시진핑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하다.

국제사회의 우등생인 한국은 NPT(핵비확산조약)를 철저히 지켜 핵을 못 갖고 열등생인 북한은 핵을 가졌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시아 균형추의 중심이 한국이다. 한편 시진핑은 많은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진핑을 비판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곧 서울에서 한국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원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오해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경제 등 모든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미국의 한 미래학자는 중국이 10년 내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전망했다. 그 징조가 실제로 나타나 시진핑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린위탕(林語堂)은 일찍이 "중국인에게 공산주의는 안 맞다. 자본주의가 맞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영리에 밝기 때문이다. 그런 중국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2중 플레이를 한다. 북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태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사회: 현실적으로 북이 핵을 갖게 됐는데, 우리의 외교적 노력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달라.

노재봉: 북한은 오는 11월의 미국 대선과 내년 12월의 한국 대선에 대해 득실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전쟁의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군사적전략'이냐, '정치적 전략'이냐가 그것이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는 '정치전략'과,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는 '군사전략'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최고 전쟁수행 지도자였던 소련의 스탈린이 '정치전략'에 중심을 뒀다면, 미국의 루스벨트는 정치전략을 배제한 '군사전략' 위주로 전쟁을 수행했다. 당시 루스벨트는 군사전략적으로 '일본의 항복'만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설득했다.

만약 루스벨트가 정치전략을 고려했다면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전략으로 종결했다면 한반도는 통일되고 핵문제도 안 생겼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도 해결방향이 갈릴 것이다. 북핵은 군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게 돼 있다.

남시욱: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대두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세력판도가 현재의 미국 주도에서 2030년에는 미 · 중간 균형으로 점차 옮아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한반도를 군사적인 완충지대로 만들어 비동맹통일을 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나, 중국 경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이 핵보유국이 되는 날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우리는 정치 · 군사 밸런스가 무너져 많은 친북파가 생겨나고, 연방제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북한은 왜 핵을 가졌나. 그들은 미국의 위협과 압살정책 때문에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1970년부터 남북 경제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밀리자,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당초 평화적 사용을 위해 소련에서 도입한 원자력 기술을 1980년대부터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개발로 전환했다.

노재봉: 문제는 한국이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일본은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북이 핵 가지고 전쟁하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된다. 그 뒤 미국이 핵을 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엉망진창이 된 후 미국이 핵 쏘면 그 코스트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북이 핵을 쏘기 전에 하는 방법은 preemtive attack(선제공격)이냐 sanction(제재)이냐 두 가지 뿐이다. 제재는 안보리 이사국이 다 합의했는데,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스스로의 핵억지력'이 최상이 현실성 난제
'안보는 사활적 국가이익'…왜 중국 못다루나

3면에 계속됩니다

북에 단호한 메시지 안겨줘야

긴급 좌담

동질성 없는 국가간 대화협상 성공 못한다
'북쪽도 우리민족'…지금은 낭만적 환상

2면에서 이어집니다

노재봉: 중국은 개별 제재는 반대하나 미국은 개별 제재를 안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사회: 군사작전이 병행돼야 해결된다는 생각은 옳은 말씀이다. 중국이 성실히 이행 안 하면 소용없다. preemtive attack이든 sanction이든 유엔 결의가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 구멍이 나타나면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남시욱: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화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 우리 쪽에서도 북한이 핵포기를 하겠다고 하면 대화하고, 6자회담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의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핵포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한다고 정했다. 평화조약은 북한과 미국 간에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관국들이 모두 참여해 별도의 포럼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건 좋다.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서면 중국이 우리한테 장난을 못 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압력을 넣자"고 한다. 북이 도저히 체제를 이끌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실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을 제재하자는 것에 북한은 죽을 지경일 것이다.

노재봉: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북 원유수출을 막고 금융제재에 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시진핑의 위치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제국(empire)이다. 중국이 G2라는 소리를 듣지만 핵을 포기하기 위해선 중국 체제도 변화하도록 압력을 넣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다. 미·중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내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제국 체제(empire system)' 변경이 우리와 미국의 과제이다. 이것 변경 안 되면 이북 체제 변경하기도 힘들다.

남시욱: 지금 pending issue(현안)가 하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번 항주에서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통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오스에 가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중·한 3자회담을 오바마대통령에게 제의, 오바마가 OK했다. 그러면 북한은 떨어져 나간다.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어떻게 압력 넣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6·25전쟁 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미국은 유엔 총회를 통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로 문제를 해결했다.

노재봉: 우리는 현재 통일의 찬스를 맞고 있다. 5대 강국이 북핵 제재에 전부 동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의 큰 자산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힐러리 캠프이든 트럼프 캠프이든 미국 대선 캠프에 사람을 보내 로비도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중국과 북한에 압력 넣을 수 있겠나.

남시욱: 최근 야당 초선의원 5명의 중국방문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의원외교도 하고 민간외교도 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해악은 크다. 사대적인 후진외교가 아니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강대국에 할 말은 했다. 우리는 단합된 힘을 보여야한다. 언론도 중국 잘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정부는 못하지만 언론은 얼마든지 중국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다시 볼 것이다.

햇볕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우리의 미래가 암울함을 느낀다. 언제까지 이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한쪽이 핵을 막으려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른 한쪽은 발목을 잡는다. 진영논리가 문제이다. 이래 가지고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임진왜란 때 기록들을 보니까 임금이 의주로 피난 가서도 신하들은 동·서로 갈라져 싸웠다.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마구 뱉어냈다. 전쟁 중에도 이럴진대 다른 때야 어떻겠는가. 이런 진영논리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하지 않겠나.

노재봉: 내부문제 발생의 핵심은 '민족'이라는 프레임에 있다. 이는 착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15때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 보단 낫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싸울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균형(equilibrium), 패권(hegemony), 전쟁(war) 이 세 가지 밖에 없다. 전쟁은 악도 선도 아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세계 강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떠벌리지만 체제를 유지할 자원이 없다. 이란은 석유가 있지만, 북한은 핵 가지고 장난하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회: 우리는 북핵 완성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하자는 것이다. 핵을 이고 살게 된 지금 같은 하늘아래 국민으로서 야당이 사드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위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남시욱: 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에 역량이 없다. 지난번 4당 대표 초청 청와대 회담 때 야 3당이 모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보고 이 모임에 크게 실망했다. 이들을 깨우쳐줘야 한다.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관제 데모란 있을 수 없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때는 관제 데모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 관제 데모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시켜 미국의 지지와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다수였다. 요즘 진보좌파란 사람들은 연일 반정부 데모하는데,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은 데모할 줄을 모른다.

노재봉: 최고 통치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외교·군사적 전략이 달라진다. 대통령을 만나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전략개념이 대통령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엔 안보리 상임위가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는데도 아직 우리 측 로비 하나 없다. 내적 결속도 없다. 야당 대표 불러 어쩌고저쩌고 뭐가 좋다 나쁘다 토론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끌고나가야 한다. 국민은 지도받기를 바라는데, 리드하는 사람이 없다.

남시욱: (사드 지지·反김정은) 민간단체들이 속속 태동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우익단체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언론을 비판했다.

사회: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만, 우리 내부는 지금 북핵 방어의 최소한의 수단인 사드 배치문제 하나를 둘러싸고도 소모적인 국론분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고, 정부에도 실전배치 단계에 이른 북핵의 심각성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남시욱: 그것은 마땅히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노재봉: 통일부는 국민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직원은 모두 기능인일 뿐이다. 북에 퍼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긴장감 갖고 임해야 한다. 언론도 문제가 많다. 삐딱하게 글 써서 (갈등·반대) 부추기며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중국이다. 우리의 사활적인 동맹은 미국인데 말이다.

사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며 웃고 있는 김정은.

사활의 묘수 '4개 북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의 불장난 막는 길

금년 들어 김정은(金正恩)이 이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벌이는 위험한 불장난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안보 지형(安保 地形)이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으로 함몰(陷沒)되고 있다.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난폭한 핵공갈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 · 미 양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응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막무가내이다. 북한은 유엔안보이사회의 2270 제재결의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일축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5월에 있었던 36년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과 '호소문' 및 '결정문' 등의 공식 문건에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주장과 "핵전력(核戰力)과 경제건설 병진" 입장을 명문화(明文化)해 놓는 배수진을 쳤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해결의 길을 완벽하게 봉쇄해 버린 것이다.

이 동 복
15대 국회의원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미국향한 도발적 무력시위
'진주만' 트라우마 자극우려

중국도 北광폭행보 넌덜머리
실리의 將計就計전략 취할듯

전쟁격발 아닌 북핵포기 요구의 경찰행동
미사일체계 전략적 정밀가격 성공률 높아

외교적 출구가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이 상황이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의 핵공갈을 사전에 저지, 파탄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전적 대미(對美) 무력시위는 1941년의 '진주만(眞珠灣) 기습'과 2001년의 '9 · 11 사태'가 미국민들의 뇌리에 각인해 놓은 트라우마(trauma)를 자극하여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금의 단계에서 한 · 미 양국이, 한 · 미 연합작전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군사작전의 전개를 통하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 획득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핵심적인 '핵' 및 '미사일' 시설이 위치한 4개 지역에 대하여 한 · 미 양국군의 전략무기체계에 의한 예방전쟁 차원의 외과수술적인 정밀공격으로 그곳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파괴, 제거하는 것이다.

정밀 공격의 대상 지역은 ① 평안북도 동창리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② 함경북도 문수리의 중 ·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③ 함경북도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 시설 및 ④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원자로 · 핵 재처리 시설 · 우라늄 고농축 시설 포함) 등이다.

이들 4개소 지역의 '핵' 및 '미사일' 시설들을 외과수술적인 정밀 타격에 의한 예방적 공격으로 파괴, 제거해야 할 이유와 그 작전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시점에서 이들 4개 지역의 관련 시설들이 파괴되어 기능한다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노력은 결정적인 단계에서 좌절,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과장된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여러 움직임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마무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정황임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지금도 여전히 핵 실험을 계속할 뿐 아니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설 및 핵심 핵 관련 시설을 일거에 파괴하면 북한은 이렇게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지 않고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 생산의 끝 공정(工程)을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한 · 미 양국군의 전략적 선제타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를 통하여 한 · 미 양국은 앞으로 북한이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여 복구할 경우 복구되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선제타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파괴된 시설의 복구 자체를 결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상시(常時) 비밀통로를 통하여 잠행(潛行) 이동을 계속하는 인적(人的)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참수작전'이 실패 확률이 높은 것과는 달리 '핵' 및 '미사일' 시설은 위치가 확인되어 있는 고정목표이기 때문에 한 · 미 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地對地) · 공대지(空對地) · 함대지(艦對地) 및 수중(水中) 발사 미사일 체계(유도탄과 크루즈 미사일 포함)에 의한 정밀 가격의 높은 성공률이 보장되어 있다.

셋째로, 일부 논자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 북한의 군사적인 반격을 유발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전면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때 김정은의 북한이 보여주었던 행태(行態)로 미루어 본다면 한 · 미 양국군이 문제의 4개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에 성공했을 경우 북한이 이에 저항하여, 전면전에 의한 괴멸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적 반격을 가하는 모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넷째로, 일부 논자들이 거론하는 우려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한 · 미 양국군의 선제공격이 단행될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내부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탱하는 두뇌집단 내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광폭(狂暴)한 행보에 넌덜머리를 낸 나머지 오히려 한-미 양국이 선제적으로 일을 저질러 주기를 바라는 심리 상태가 존재할 가능성이 SNS는 물론, 심지어 일부 학계 인사들의 논문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약 한 · 미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군사적 선제공격을 성공적으로 단행할 때는, 중국은 일단 이를 비난하는 대대적 선전 공세를 전개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의 파괴를 기정사실로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중국 페이스의 외교로 사태를 정리하는 것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현실화시키면서 '실리'를 챙기는 삼국지식(三國志式) '장계취계(將計就計)'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만약 한 · 미 양국이 북한의 선정된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방전쟁 차원의 정밀 타격 시행을 선택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안전수칙'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로는, 문제의 정밀 타격이 치밀하고도 완벽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동에 옮겨짐으로써 계획했던 군사목표의 100% 달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밀 공격을 감행하는 시점에서 한 · 미 양국은 이 공격이 전쟁을 격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다섯 차례의 대북제재결의(1718호/2006 · 1874호/2009 · 2087호/2013 · 2094호/2013 · 2270호/2016)에 일관되게 담겨져 있는 "북핵 및 미사일 포기"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일회성"의 "전쟁 방지를 위한 경찰 행동"일 뿐 아니라, 북한의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도발적 언행에 맞선 유엔헌장 제51조에 근거한 "자위권(自衛權) 발동"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유엔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 활동을 적극 준비하고 차질 없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 타격 이후 북한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되, 여기서는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적대적 2분화로 정치균열구조 확대 재생산

반란 · 반동 · 분열의 쳇바퀴를 멈춰라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
전 정치학회장

배제의 정치 핵심엔 대통령들이…
경쟁적 지배연합을 용납치 않아

기득권 대 서민층 등 갈등구조 양산
'일방적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 일뿐

한국정치가 국가는 총체적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의 탓만 하고 있지, 안보 불안, 경제 침체, 사회 부조리와 부패 등의 가중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거나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늘의 위기는 오랫동안 쌓여온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으로서 그 근원은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가 사회적 모순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해왔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정치는 사회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그 원천이 되기도 했고 또 증폭시키기까지 했던 것이다. 한국정치는 원죄를 지어 왔으며 그것이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정치의 근본적 모순은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 해방 후 국가건설 · 산업화 ·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갈등구조를 갖게 되었다. 소위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사회갈등구조를 형성했는데, 한국정치는 이를 조장하거나 동원함으로써 배타적인 정치균열구조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배제의 정치 핵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정치 엘리트들은 정치균열구조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지배연합을 형성했는데, 대통령은 그 정점에 위치한다.

이 지배연합은 경쟁적 지배연합을 배타적으로 상대하거나 아예 탄압하고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권력 유지와 강화를 꾀한다. 사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지지자와 반대자, 승자와 패자를 모두 아우르는 통치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정치로 전락된 것이다.

'左 장군·右 율사·中 관료' 국수주의 성향 함몰
'배려와 관용' 과 배제의 종식없이는 협치 불가

사회갈등의 뿌리는 정치에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배제의 정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대통령 모두에 의해 나타났다. 최근 3명의 대통령들에 와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와 386세대를 지배연합의 주축을 형성하고 갈등구조를 진보 대 보수, 기득권층 대 서민층 등의 이분법 논리로 재편성하여 정치균열구조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이른바 반란 정치(politics of rebellion)를 기도했다. 386세대의 젊은 층과 진보인사의 등용, 기득권 청산을 위한 수도 이전 계획, 지역균형발전 계획 실행, 검찰 및 국정원 개혁, 시민사회의 정부 참여 등의 혁신을 통해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제한하려 했다. 이로 이한 보혁갈등이 첨예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반(反)테제를 표방하면서 보수지배연합을 구성하여 경제살리기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친 기업정책, 4대강사업, 녹색성장 정책, 종합편성 방송개설, 세계금융위기에서의 선전, 대북강경정책으로의 전환 등 보수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기 초기부터 좌파 척결과 노무현 제거(anything but Roh Moo Hyun)를 우선 정책으로 실시했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배제의 정치는 반동정치(politics of reaction)라고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차하면서 국가사회는 극도의 불안정과 혼돈 속에 빠졌으며 이제 국민마저 이념적 양극화 현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성적 다수 국민은 진보와 보수의 변증법적 발전, 즉 진보정권(正)과 보수정권(反)을 아우르는 합(合)의 정치를 기대했었다.

즉 단순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이념갈등을 극복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정권 탄생을 희망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등에서 그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역시 또 다른 종류의 배제의 정치에 함몰되었다. 대통령의 가치와 원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열 또는 배신으로 낙인찍었고 몇 차례의 영수회담과 국회시정연설, 기자회견 등은 일방적 소통으로 끝났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을 교훈으로 삼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고정치(politics of restoration)는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배제의 정치가 종식되지 않고는 국난을 극복할 길이 없으며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사회로의 진입은 요원하다. 경쟁세력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그동안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적대적 정치균열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한국의 성공신화는 사라질 것이다. 포용과 관용의 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국민통합과 여 · 야 협치를 구현해야 할 때이다.

오늘의 나대로

이홍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언론은 2001년 8월의 참변과 굴욕 잊었는가

박 석 흥
본회 편집위원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한 신문사 주필 금권탐닉이 한국언론 치욕의 역사로

구악체제 동거 일부언론 독선 기자들 절망과 허탈에 빠뜨려

관습화된 도덕적 해이가 재앙불러 고질적 오만 · 편견 벗어나 자정해야

김대중 정부의 세 신문사주 구속 망각했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앞장서 폭로했던 조선일보가 8월 31일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초청 출장에서 잘못이 있어 해임 했다"고 밝히고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주필의 일탈 행위를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1면에 게재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거래 보도'가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는 여권의 볼멘소리에 이어 새누리당 의원의 조선일보 주필의 이해상충 위반 지적에 조선일보가 공개 사과한 것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벌인 '신문과의 전쟁'에 버금가는 한국 언론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과문을 읽은 언론인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조선 · 동아 · 국민일보 사주 3명이 구속되고 유력 언론인들이 언론계를 떠났던 2001년 8월의 '참변'과 '굴욕'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고 한탄 한다. 조선일보의 공개 사과는 15년 전 김대중 정부의 '신문과의 전쟁'의 언론인 윤리 마비가 재연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주역이 사주 대신 주필로 바뀐 것일 뿐, 언론인의 윤리 실종 · 언론인의 범죄 방조 · 정치권력의 언론 손보기 의혹 등이 대동소이하다. 조선일보 전 주필의 탈선에 대한 언론계 자성의 소리는 높았으나, 언론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무너졌다. 한 신문사 주필의 권력 탐닉으로 잃어버린 신뢰는 언론계 전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사건의 진실 밝혀라"

중앙일간지 대부분이 9월 한달 사설과 칼럼으로 조선일보 주필의 탈선을 질타하고 언론인의 직업윤리 확립을 촉구했다. 인터넷 조선닷컴 등 인터넷매체에도 전직 조선일보 기자와 애독자들이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보도됐으며, 9월 12일 조선일보 옴부즈맨 지면에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사과가 미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표현 강도를 높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렸다. 이번 사건을 주필 개인의 비리나 모럴 해저드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독자들의 의심과 의혹을 씻어낼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핵실험 · 법조삼륜비리 ·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 반란 반동 분열의 정치 등 무덥고 긴 여름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건 속출에 이어 터진 조선일보 주필의 일탈 행위는 대부분의 언론인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2001년 신문사 사주 무더기 구속에 이어 2016년 신문사 주필의 대기업 범죄 비리 연루 협의가 또 사회문제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일보 주필의 범죄 협의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인의 파렴치한 범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 언론의 자정작업에 끼어든 정치권력

그러나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신문 사주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었다. 언론인들은 1995년에 21세기 한국 언론의 새좌표 모색을 위한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간 한국언론의 해묵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좌표를 제시하는 '한국 언론 2000년 위원회보고서'를 2000년 10월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인터넷 매체 등장에 의한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의 윤리규범 부재, 정파신문 저널리즘, 편집의 획일화 동질화 상업주의 만연, 신문기업의 부조리 등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환골탈태하는 언론 개혁을 촉구 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없이 불공정하게 지원하고 선거 후 집권당에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권언 유착 종식 · 정파주의 언론의 체질개선 · 언론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상업주의로부터 해방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저질 정치 도구로 전락한 2001년 신문 윤리타락과 신문기업의 부조리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신문과의 전쟁'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가 언론의 자정 작업을 돕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 언론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것은 큰 잘못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8월 17일 세 사주를 탈세 협의로 구속하기 꼭 한달 전인 7월 17일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닉슨을 하야시킨 워싱턴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 사주가 타계하자 미국 정부와 지식사회는 고인을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실천한 언론인으로 높이 평가"하고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2001년 여름 정치권력과 맞서서 부정과 비리를 고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한미 양국의 언론 사주에 대한 두 나라의 대조적인 현상은 정치 문화의 수준 차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한국 신문의 관습화된 윤리 타락과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재앙이기도 했다.

외국 언론사들 이해상충 지침이 핵심

한국 언론의 직업윤리 강화와 자정 작업은 2016년에도 시급하다. 1957년 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언론인의 품격에 대한 추상적인 지침은 있으나 이해상충 지침안은 엉성하다. 외국 신문의 직업윤리강령에는 제일 먼저 이해상충 지침이 제시되고 신입사원은 이 지침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언론인이 된다. 한국 언론도 신문사 마다 구체적인 윤리 지침을 만들어 조선일보 전 주필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신문과 전쟁'으로 언론의 기를 꺾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신문의 침묵으로 최고권력이 연계된 부패가 만연해 잘 나가던 대한민국 경제가 전락하고 대통령의 자식과 친인척이 무더기로 범죄인이 되고 대통령 한 사람은 자살했다.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

역성혁명으로 개국한 조선(朝鮮)은 독특한 언관제도를 만들어 권력 부패를 막았다. 권력 감독기관인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청요직은 인선부터 왕권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핵심부서인 전랑이 언론 삼사의 청요직 인선을 추천하고 후임자도 지명하도록 독립권을 주었다. 사화와 당쟁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언관의 독립성이 마누라를 독살한 이순(숙종)이 전량의 후임자 지명권을 빼앗고,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이금(영조)이 언론삼사 인사권을 봉쇄해 조선의 언관제도가 무너졌다. 언관제도가 무력화 되자 잠시 왕권은 강화됐으나 부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부패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경제부 출신 조선일보 전 주필의 탈선만이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신문과 전쟁'을 주도한 세력 등 다음 대선 출마 예상 정치가 앞에 줄 서는 신문과 정치부 기자들의 정파주의 보도,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에 대한 일방적 뭇매 기사, 유관순 열사를 '몸 파는 여자'로 매도한 사람을 위대한 시인으로 대서특필하는 문화부기사 등 탈선이 적지 않았다. 구악 체제와 동거하는 일부 언론은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언론인 스스로 자정에 나서 평생 언론을 바람직한 직업으로 알고 치열하게 살아온 순수한 기자들을 절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황 바오로6세는 언론 자유의 남용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했다. 공정성, 객관성, 신빙성, 책임감, 존엄성, 사회적 기능 등을 언론인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오로6세는 기자직을 사제직과 같은 외로운 직업이라고 규정하며 "기자는 사욕 없이 공정하게 진실되고 사랑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다음 차례는 누구냐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 소식에도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에 속한 주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장기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내수 부진과 함께 수출이 급락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에 잠재성장률 저하까지, 활력을 잃어가기만 하는 경제 현안들은 일본의 20년 '장기불황'과 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최 희 조
본회 회우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우리 경제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시적 대증적 응급처방으로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만성적 · 구조적 · 복합적 악재들이 내부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매킨지는 지난2013년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을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저성장을 극복할 체질변화를 주문했다. 보고서가 나온지 3년이 지났지만 매킨지의 경고는 그 때보다 지금 더 피부에 와 닿는다.

2013년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해이다. 그 해 경제성장률은 2.9%였다. 2014년 3.3%, 지난해 2.6%, 올해도 2.6%로 전망되지만, 악재가 많아 이나마 달성에 비관적이다. 이같은 저성장은 이미 IMF 이후 서서히 그 기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이후 뚜렷해지고 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화해 저성장기조로 들어섰다. 잠재성장률(4%)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의 저성장으로는 경제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내수 수출이 동반 부진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과 해운업에 본격적인 불황이 닥치고, 특히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에다 삼성의 갤럭시노트 7 대량 리콜사태 등으로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악재 투성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막무가내 핵실험으로 안보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북한 리스크가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와 안보, 두 축이 모두 흔들리는 위기국면이다.

우리 경제의 위기국면은 구조적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산업경쟁력 저하라든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실업,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방산비리 등등 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대외 경제여건도 아주 나쁘다. 대외요인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불리한 요인이 하나 둘이 아니다. 세계경제침체, 미국의 예고된 단계적 금리인상,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 중국의 경기둔화 등등. 오는 11월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점도 촉각을 세우게 한다.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무너진다. 본격적 저상장기조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7-4-7' 정책이란 게 있었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 성장에 1인당 소득 4만 달러, 임기말 7대 경제대국 달성이 그것이다. 하나도 달성하기는커녕 실제 나타난 경제지표는 제시한 공약지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당초 공약이 얼마나 황당했었는가를 드러냈다.

4대강 사업이 토목공학측면에선 타당했었는지 몰라도, 투자의 효율성 면에선 실패였다고 평가한다. 지리적으로 서로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4대강에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수십조원의 돈을 퍼부은 건 한정된 가용재원에 비추어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투자였다. 거기다 자원외교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퍼부었는가. 해외자원개발이 물론 중요하고 리스크가 많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밝혀졌거나 예상되는 손실이 너무나 크다.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두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이같은 정책을 펴는 사이 성장은커녕 경제체질은 계속 약화됐다. 단순비율로는 국제수준보다 낮아 우려할 바 아니라고 하지만,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정부 공기업, 특히 가계의 누적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언제 뇌관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다. 부채 증가규모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불어나기만 했다. 국제신용 평가기관들은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의 신용을 높게 평가했다.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절대적으로 믿을 게 못된다.

임기말에 접어든 박근혜대통령도 집권 2년차인 2014년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내놓았다. 거기에서 4-7-4 경제비전이란 것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닮아 얼핏 보아 숫자만 앞뒤를 바꿔놓은 것 같아 헷갈린다. 잠재성장률 4%에 고용률 70%, 1인당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으로 보면 목표달성은 물 건너갔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3만달러 가까이 갔다가 지난 10여년 사이 2만달러대에서 맴돌며 3만달러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퇴조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됐던 일인데, 그동안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대우조선에서 보듯 사장 등 임직원들은 물론, 채권은행으로서 기업 속사정을 손바닥 들여보듯 꿰차고 있을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일부 내로라 하는 언론인까지 한통속이 돼 숨넘어가는 기업의 돈을 흥청망청 빼먹었다. 죽어가는 기업에 쏟아부은 조 단위의 구제금융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쪽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경기침체에도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한진해운의 경우도 물류대란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나 해당 기업이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7-4-7이니 4-7-4니 하며 엉뚱한데서 헛발길질이나 했으니 경제가 잘될 리 없다. 조선과 해운업 말고 또 어떤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부실기업이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

IMF는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에 대해 분석한 '일본과 평행선, 한국의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각종 위기의 징후들이 1990년대 초중반 일본과 꼭 닮았었다는 사실을 짚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20년 격차를 두고 일본을 뒤쫓고 있다고 봤다. 4%대를 넘나들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와 비슷하다. 비(非)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일본과 유사해 한국 경제의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독자 생존 가능성이 낮은 '좀비기업'의 비율이 늘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현상 등도 한 · 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두 경제 체제에 국가채무비율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차별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닮은 점이 많아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융권 부실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감당해야 했던 사실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충고이다.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 개혁 역시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이 경제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저하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해 8년 집권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데 아주 좋겠다. 우리나라는 5년 임기대통령들이 보수 · 진보를 떠나 경제정책 승계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신들의 임기내에 모든 걸 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나라빚을 잔뜩 불려놓거나 정책실패를 했어도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다. 경제난은 과거 산업화시대와 달리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 사회 · 교육 등 각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 타개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복합적 처방을 해야한다.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내겠지만, 송사리나 꼬리만 잡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할 수 있다. 대통령부터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게 투명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 안하고 지하경제 뿌리 뽑고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게 말뿐이어서 되겠는가. 제한된 지면에 더 이상 미주알고주알 하기 어렵지만, 자리이든 돈이든 끼리끼리 안 해먹고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만 있다면 국민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만성적 · 복합적 악재들 깊숙이 퍼져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한국경제 직면한 각종위기 징후들
1990년대 초중반의 일본과 꼭 닮아

경제위기 타개책, 구조조정과 체질개선뿐
정치·사회·교육 등 구조적 비정상 함께 잡아야

이제 누가 판사입정 때 일어서겠는가

육 정 수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육법전서 두고도 윤리와 도덕 실종…
부패 · 부정의 선두주자가 법조계라니

비리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안으로 굽는 손…중징계는 5%에 불과

판사 · 검사 · 변호사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다. 최고의 엘리트로 통할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현직을 떠난 뒤에도 대부분 국민 전체의 소수점 이하 순위에 드는 부(富)를 누린다. 대학 또는 대학원 시절까지 몇 년 동안 법서(法書)에 매달린 결과 평생을 보장받는 '금수저'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 테두리 바깥에 존재하는 특권(치외법권)을 누리기 일쑤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제아무리 다른 직종에서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검사 앞에 서면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된다.

반말을 당하는 것은 보통이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힘을 잘 아는 부유층은 자식을 판 · 검사로 만들거나 판 · 검사 사위를 보려고 애쓴다. 방패막이로 쓰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법조인은 약관의 나이에, 또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가 퇴직한 후에도 정치권에 스카우트 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16%나 차지한다.

그것도 요직을 가장 많이 점유한다. 국회는 법조인 출신들의 놀이터인 셈이다. 청와대도 국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요직에 앉아 공직사회를 쥐락펴락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 언론의 비판대에 오른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최종적인 헌법 및 법률해석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법조계에 육법전서(六法典書)는 있으되 윤리와 도덕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다.

공직사회 전반을 볼 때 썩지 않은 곳이 거의 없지만 최근 법조인들의 여러 독직사건에서 보듯이 부패집단의 단연 선두로 지목받는 곳이 바로 법조계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곧 법치(法治)주의를 말한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처럼 최고 통치자에 의한 인치(人治)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법치를 행하도록 중심을 잡는 집단이 바로 법조인들이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는 법조계의 세 분야를 지탱하는 '법조 삼륜(三輪)'이라 부른다. 3개의 바퀴가 각자 역할을 다하며 제대로 잘 굴러갈 때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최근 이 3륜이 모두 비리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올들어 잇따라 드러난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 등 전 · 현직 판 · 검사의 비리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 김형준 부장검사, 김수천 판사 등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어느 무명 판사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자.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직후 3~4년간 극도의 혼란기였고 사법부 역시 그랬다.

이때 33세인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良忠)라는 판사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식량통제법 위반사건 전담 판사였다.

당시 일본은 쌀 생산량이 전쟁 전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아사자가 속출하자 배급제를 실시했다.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는 강력한 식량통제법에 의해 성인의 하루 배급량을 300g으로 제한했다.

쌀 암시장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이 법으로 단속되는 사람만 매년 120만 명을 넘었다. 이때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죽거나 교도소에 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야마구치 판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계단에서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극심한 영양실조 때문이었다. 그는 쓰러지기 전 병상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식량통제법은 국민을 굶겨 죽이는 악법이다. 그래도 법률인데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판사인 내가 암시장 쌀에 입을 댄다면 어떻게 피고인들을 심판할 수 있겠나. 차라리 식량통제법 아래 행복하게 굶어 죽을 생각이다….'

야마구치 판사는 끝까지 배급 쌀로 버티다 죽음을 부르고 말았던 것이다. 맥아더 사령관은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맥아더 사령부는 최고재판소장(대법원장)을 총리와 동격으로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했고 판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판사들은 야마구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다. 민형사(民刑事)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물론 판사도 사람인 이상 야마구치 판사 정도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법조 3륜은 최소한 불법과 비리에 몸을 담그지 말아야 재판 당사자의 승복과 국민의 존경,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 국가는 그들에게 다른 공직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고 비교적 높은 봉급과 신분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마구 법을 일탈해 부(富)를 쌓으면서 약한 서민의 '티'를 재단(裁斷)하려 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이는 법치국가의 길이 아니다.

법조계 추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현직 판 · 검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50세도 채 되기 전에 차관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특권의식이 몸에 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다는 생각에 보상심리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 틈을 노리는 유혹의 검은 손길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고백이다.

둘째, 비위를 저질러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기 때문에 비리사건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부 감찰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다룬 236건 중에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7%가 경고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홍만표, 우병우 등 전관변호사에 의해 문제된 '몰래 변론', 즉 선임계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100만~1,000만원의 경징계에 그쳤다.

셋째,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의해 법조인을 충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로스쿨에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도덕 윤리의식을 제대로 기르는 교육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로스쿨 출신 젊은 법조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그를 교육시킨 해당 로스쿨의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도대체 올바른 법조인교육이 없다는 뜻이다. 오로지 변호사 자격시험에 몇%나 합격시키느냐가 목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법조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국민의 사법제도 불복을 부채질하게 되어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판사의 몸가짐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결정적 요소로 생각했다. 그는 특히 "법관이 청렴성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사법부를 떠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의 법정 영화를 보면 검사, 변호사를 비롯한 재판 관계자들이 판사에게 말끝마다 '유어 아너(Your Honor)'라며 판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한다.

재판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과 판결을 해달라는 무거운 주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판사가 입정할 때 모두가 일제히 기립한다. 물론 검사와 변호사도 이에 준하는 직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사법제도 불복 부채질…악화일로 우려
'Your Honor' 법관 존경심 되찾아야

600 원로 언론인이 다시 들었다

THE PEN

새옷 갈아 입는 大韓言論

〈편집자의 편지〉

추석이 낀 9월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천재지변까지 한반도를 엄습, 북핵 압력을 가중시켰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질서 개편을 두고 두 불록의 암투와 대권 장악만을 위한 막가파식 정치 격돌로 87년 체제 이후 누적된 정치 · 경제 · 언론의 적폐(積弊)도 무더기로 분출, 지난 9월은 시끄러웠다. 북한 핵실험 · 법조삼륜 비리 ·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 반란 · 반동 · 분열의 저질 정치 폭발에 이어, 터진 조선일보 주필의 일탈행위 폭로도 대형 참사였다. 사회를 계도해야 할 신문 주필까지 대기업 부조리에 가담했다니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이 시급하게 된 것만은 자명한 것 같다. 10월호 신문 제작을 앞두고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쟁점은 북한 핵이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주필의 일탈, 20대 국회의 막장 다툼 등이 제기됐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 남시욱 전 문화일보사장 · 이병대 본회 회장이 정리한 10월호 권두 정담 '북한 핵'은 정치권의 진부한 안보 논쟁을 뛰어넘는 정확한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였다. 지면 사정으로 토론 일부가 삭제됐음을 밝힌다. 권두 정담에 이어 前 남북고위급회담대표 이동복 前 한국일보기자가 기고한 '북한핵실험과 안보'도 2면 분량의 상세한 현황 분석과 대안 제시였다. 지면 사정으로 반밖에 싣지 못해 아쉽다. 동아일보 법조팀장과 헌재대변인을 역임한 육정수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시론 "법조 삼륜이 썩으면 나라는 끝장이다"는 법조 비리 원인과 그 시정 방안을 제시한 시의 적절한 고발이었다. 9월호 권두대담 국론 분열을 읽고 대안을 제시한 박진서 회원의 시론과 최서영 회원의 바이칼호 기행문도 10월호 대한언론의 열독률을 높일 좋은 글이다. 윤임술 원로 회원, 이석희 회원, 이정식 회원 등의 동정을 심층 확대, 보도했다. 대한언론 제작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성의 있는 투고로 대한언론 지면이 변하고 있다. 회원들이 펜을 들어 대한언론 지면을 더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란다. 조선일보의 주필 일탈 사과문을 보고 "DJ 정부의 언론삼사 사주 구속의 굴욕을 잊었는가"라는 회원의 분노의 전화를 받고 편집위원장이 언론계 자성의 소리를 정리해 실었다.

안보논쟁 뛰어넘는 적확한 해법 탐색

2001년 신문사 사주 무더기 구속에 이어 2016년 신문사 주필의 대기업 범죄 비리 연루 혐의가 또 사회문제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인이 권력에 기생(寄生)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조선일보 주필의 혐의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인의 파렴치한 범죄가 계속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석흥 본회 편집위원장

알림

홍용수 '노후의 경제생활' 11월 개강

4월부터 매월 열린 정신 건강 강의가 10월로 끝나고, 대신 매월 그 자리에서 경제전문가 홍용수 회우의 강의가 열린다.

홍용수 본회 회우는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다 한국경제 논설위원, 한양대 겸임교수, KBS라디오와 TV 경제프로 MC를 거쳤다. 그 후 NSI 자산관리회장을 거쳐 현재 명예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의 주제는 노후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재와 소비생활 저축, 재산 상속 등에 관한 국내 · 외 사례와 해박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회원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 것이다.

일시 : 11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2층 소강의실
주제 : 이재와 소비, 생활 저축, 재산상속 등

회우칼럼 – 어제 오늘 사이

우리말과 글의 품위를 지키자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우리말과 글이 갈수록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 위험수위를 넘어 보고 듣기 괴로울 정도로 병들었다. 우리말과 글에는 민족 고유의 정서와 자존심이 배어 있다. 우리말과 글을 천대하는 것은 결국 민족정기와 주체성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거리에 나서 보면 건물마다 우리말보다는 외래어 간판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는 업종을 가릴 것 없이 공통적이다. 이렇게 외래어 간판을 내걸어야만 손님을 더 많이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도시이건 시골이건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아파트 대다수도 뜻을 알기 어려운 외래어 이름을 달고 있다. 새로 지은, 또는 새로 짓는 아파트도 똑같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아파트 이름을 붙여야 매력이 있고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래서야 어디 조상의 혼령들이 제삿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찾아올 수 있겠는가.

무분별 외래어, 국적불명 신조어에 짓밟혀
방송부터 국어 훼손…일반인 소통장애 불러

아니, 조상의 혼령은커녕 살아 있는 노인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어쩌다가 자식들을 찾아 상경이라도 하면 아파트 이름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말과 글을 외면하고 천대하고 훼손하는 것은 간판이나 아파트 이름뿐이 아니다. 일부 젊은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외국어 이름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다. 연기나 노래는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요상한 외국식 이름을 내걸고 행세한다고 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도 없고 민족적 주체성도 없는가!

우리말과 글이 이처럼 천대받고 오염되고 훼손당하고 골병이 깊이 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운 형편이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외래어와 국적불명의 신조어에 짓밟혀 우리말은 갈수록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광복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일본말 찌꺼기를 털어버리지 못했고, 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말과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

특히 국민의 바른말과 글쓰기에 모범이 돼야 할 방송부터 걸핏하면 국어를 훼손하고 언어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니 딱한 노릇이다. 일부 오락 프로를 보면 일반인들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줄임말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다. 얼짱 · 엄친아 · 열공 · 듣보잡 같은 괴상한 줄임말이 설치고 해안가(해변가) · 모래사장 · 관중들(군중들) · 제작진들 · 우리들 하는 따위의 겹말이 연발된다. 박수치다, 빈 공간, 푸른 창공, 늙으신 노부모, 아름다운 미인, 넓은 광장, 남은 여생, 수확을 거두다, 결실(결연)을 맺다, 소외감(배신감)을 느낀다, 관점(시각)에서 본다 하는 것도 모두 겹말이다.

또 치루다는 치르다의 잘못이고, '발자국 소리가 난다'느니, '이름 모를 절망감'이니, '굉장한 미인'이니 하는 소리도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모듬요리는 모둠요리, 찌게는 찌개를 잘못 쓴 말이다. 전에 어떤 소설가가 쓴 『대무신왕』이란 소설을 읽다가 어이가 없었다. 상대방 부여 장수가 너는 누구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나는 대무신왕이다!" 대무신왕은 사후에 바친 존호이지, 본인이 생전에 지어 스스로 부른 칭호가 아니다.

사극을 봐도 그렇다. 고려 중기에 원나라(몽골)에서 들어온 '마마'라는 호칭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 대사에도 나오고, 일본식 용어인 기라성 · 민초 · 중차대 · 일가견 같은 말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조(李朝)는 조선왕조, 현해탄은 대한해협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옳다.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쓰는 것은 곧 국격(國格)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말과 글에는 올곧은 정신을 담아야 한다. 말과 글은 곧 인격의 잣대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천대하고 훼손하고, 남의 글을 표절이나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무례한 짓이야말로 인품과 인격을 팽개쳐버리는 짓이다.

i-돌봄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세요
1577-2514
전화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네덜란드의 기적 '폴더모델'을 주목하라

박 진 서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Polder모델

분초 다투는 국민합의 무너지면 끝장
개인보다 공동체 우선 상생문화 일궈

극단적 이기주의 · 포퓰리즘 중독상태
우리들 빈사의 민주주의 재기불능인가

국론분열 누란의 위기 '한국병'을 고쳐라
기득권서부터 합의과정 시스템 적응해야

"정오의 결투(highnoon)" – 오래 전 명우 "케리쿠퍼" 주연의 미국 서부영화의 제목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생사를 건 결투를 벌인다는 줄거리이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제이에프 리셜"(J.F.Rischard)박사는 지금 UN을 비롯해 G7이나 WTO 등 국제기구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 전 인류가 목숨을 건 정오의 결투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베스트셀러가 된 "하이눈"(20global problems. 20years to solve them)이란 책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로 온 국민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정오의 결투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보겠다.

1975년, 일본의 권위 있는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에 "일본의 자살"이란 충격적인 제목의 글이 실려 일본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시인들이 함께 쓴 이 글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한 일본이 건국 후 처음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국민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하고 자성하는 메시지였다.

이 글은 국가 자살의 요인은 "포퓰리즘"과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정치지도자들이 대중에 영합할 때 그 나라는 몰락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한국의 요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소름끼치게 하고 있다.

정치의 최고 목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치가는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임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정권창출을 위해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만연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기이익만을, 자기주장만을 앞세워 보수와 진보의 대립, 빈부격차와 세대 간 갈등으로 국론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진수인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루는 의회정치의 모습은 살아지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하며 심지어 결사투쟁이란 과격한 행동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과 미시일 도발로 대응이 시급한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지금의 작태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한반도의 5천년 역사는 외침의 비극과 굶주림의 고통, 바로 그것이었다. 백성들이 하루도 베개를 높이고 편안하게 잠든 날이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참담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조국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생존 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병리현상으로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 가려하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았던 "브라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미좌경국가들이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역사적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 천년동안의 역사 속에서 쇠퇴하고 패망한 국가를 보면 이렇게 망국적인 병리현상인 내부의 적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리현상을 알면서 방관하고 포기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 타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하는 꼴이 된다.

40년 전 국가의 자살을 걱정했던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절규가 절실하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우리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야 할 지식인 엘리트들도 이런 병리현상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미래는 없고 현재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 모두가 나를 버리고 변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가꿀 때 지금의 국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경제정책 실패로 재기불능 국가로 분류된 나라를 "네덜란드 병(病)"에 걸렸다고까지 혹평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과 함께 화란(Ducth)의 기적, "폴더모델"을 선망의 고유명사로 만들어 낸 네덜란드는 80년대에는 실업률이 두 자리 수, 재정적자는 GDP 대비 6.6%를 넘어 유럽의 애물단지 열등생이었다.

그런 화란이 불과 15년 만인 90년대 후반에는 실업률이 3%로 줄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유럽에서 톱을 차지했고 99년에는 드디어 재정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 EU 가맹국 가운데 최고의 우등생으로 변모했다. 이를 두고 세계는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는지 서둘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폴더"(Polder)는 네덜란드의 매립지를 뜻한다. "폴더모델의 성공 원인의 배경에는 네덜란드 특유의 합의과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합의과정 시스템은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드려 협의하고 합의하여 이를 통합해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치수(治水)사상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치수의 역사가 바로 네덜란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알프스에서 발원돼 유럽대륙을 관통해서 북해로 흐르는 라인강 등 3개의 하천이 모아지는 삼각주에 자리 잡은 저지대(低地帶) 국가다. 특히 이 지대는 알프스의 엄청난 강설량과 유럽대륙의 강우량에 의해 수없이 일어 난 홍수로 지형의 변화가 거듭되어 지금은 국토의 70%가 해수면 보다 낮은 저지대가 되었다.

때문에 한 군데라도 제방이나 뱀이 무너지면 네덜란드 국토의 대부분이 침수 되는 참혹한 재해를 입기 때문에 치수관리는 분초를 다투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했다.

네덜란드에는 12세기 때부터 수로관리부라는 조직을 두어 제방, 부두, 수로, 도로 등 치수관련사업을 관장케 하여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인 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합의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네덜란드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다민족, 다종파, 다문화별,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정치단체와 이해에 얽매인 직종별 상업단체, 또 계층별 사회단체 등 수 백 종의 압력단체가 난립하여 치수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합의는커녕 극심한 분열을 일삼아 이른바 "네덜란드 병"이란 치욕적인 고유명사의 주인공이 되었었다.

그러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분열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기득권세력과 모든 국민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켜, 치수사상을 통해 모든 분야에 새로운 합의과정시스템을 활용토록 하여 분열로 치닫던 국론을 통합시키는데 성공했다.

합의과정 시스템은 하부조직서 부터 각 그룹과 각 계층의 실무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토론에는 국가공동체의 목표와 이익이 우선되어야하며 소속된 조직과 개인의 이해관계는 철저하게 걸러내며 배제된다. 물론 이 합의과정 시스템도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다.

많은 세월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해 가야 된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치수역사이듯 우리의 역사도 외침을 막는 안보의 역사이며 생존의 의존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 모두가 안보문제에는 분열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끝장' 핵 광인의 질주어쩌나

신문시평

김광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부국장

북한이 5차핵실험을 했고, 경주에 사상 최강의 지진이 발생, 한반도를 강타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해상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에서 다시 트럼프 후보와 박빙의 대결로 가고 있다.

이런 북핵과 지진 같은 엄중한 한반도 현실은 일단 힘과 지혜를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권은 아직도 이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이 일제히 김정은의 끝장 핵질주를 비판했다. 조선은 "핵 광인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운명"이라며 "핵쥔 김정은을 독자타격할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제 북핵대응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대북억지력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의 한 단계 높고 실제적인 대비책을 제시하고, 사설에서 "자멸을 재촉하는 북한 5차 핵실험"이라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아는 "김정은 막가는 핵 폭주"로 이제 국가비상사태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을 싸고 돈 중국 시진핑은 동북아 핵 도미노를 자초할 것인지" 라고 물었다.

한국은 "빨라진 북핵 시계…김정은 끝장 치닫다"라며 "북제재가 소용없고 보란 듯이 기습 핵실험을 강행해 새판짜기를 노렸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북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까지 다다른 무모한 도박으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생존의 필수조건, 신자주국방' 시리즈를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핵, 미사일 같은 현대전에서 전력열세로 남 · 북 군사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최악 안보위기에서 남한의 국방은 핵대비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의존하는 국제사회 공조제재는 독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여 · 야, 진보, 보수를 초월한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겨레는 "북한이 고강도제재에 맞서 무모한 핵폭주를 했다"면서도 사설에서는 "북한규탄과 야당성토밖에 모르는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했다. 또 "핵 해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며, "보수정권 8년간 북핵실험 4차례"라며 "대북 강경정책이 '파탄'되었다"고 오히려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경향도 북한은 "9월 9일 9시…김정은 체제 견고함을 과시했다"며, "북한제재 무용론이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춘 국가로 행보를 가속화"했고, "핵포기는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며 북한규탄보다는 북한상황을 전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위기상황에 남한이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여권정치인들은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는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조이는 중국의 원유중단 등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향은 "막나가는 핵무장론, 공존도 북 붕괴도 아닌 동반자살"이라며 "여권, 보수언론들이 공포의 핵균형 여론몰이를 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면 세계평화가 온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언론이 국내와 미 · 일 · 중 등 외국의 대북전문가와 정책집행자들을 총망라해서 북핵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대 기획 시리즈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코앞에 닥친 현실적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 때마다 잠깐 반짝하는 보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이런데도 일부 야당 인사는 "북핵이 햇볕정책 폐기 때문"이라거나 "사드 배치는 백해무익"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경주에서 일어난 5.8규모의 사상최대 규모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지진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컸고, 여진도 상당히 계속됐다. 대부분의 신문은 이번 지진을 북핵에 버금갈 정도로 집중보도했다. 특히 지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국민안전처의 무감각을 언론들을 집중 질타했다.

"지난 여름 시끄럽게 울리던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는 지진이 발생한 이번에는 너무 늦게 보냈고 홈페이지도 먹통이어서 접속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당황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 줄은 몰라 각자 우왕좌왕했다. 지진은 끝장 치닫다"라며 "북제재가 소용없고 보란 듯이 기습 핵실험을 강행해 새판짜기를 노렸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북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까지 다다른 무모한 도박으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규탄 · 성토밖에 모르는 정부 안보무능도 비판

이 났는데도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거나 야간 자육학습을 강행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경주 부근 일대에 원전이 많이 있어 지진에 의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가 현재 전기를 풍성하게 쓰는 것은 대부분 원전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많은 언론들을 현재처럼 전력을 원전에 의존하려면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反)원전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은 추가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 때처럼 일부 야당정치인과 시민 운동권자들은 이번 지진 피해와 원전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됐다. 지진 피해지역에 몰려가 그들을 돕기는커녕 얼굴 내밀기나 브리핑 청취 등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대안 없는 반 원전운동을 펴기도 했다.

이달의 보도사진

수채호

헤럴드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이동희)는 제164회 이달(10월)의 보도사진상으로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

Focus

이달의

'김재수 해임안' 감정·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툼 끝에 통과됐다. 김 장관 해임결의안은 21일 이 두 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때 거듭한 끝에 표결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 정 처리'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을 동원했다. 총리 및 장관들의 답변 시간이 관들이 이렇게 정쟁(政爭)에 직접 뛰어든 것 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장관 한 명의 거취 게 희극적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야당은 김 장관 해임 사유로 '청렴성과 도리 대출 의혹, 수년간 시세보다 낮은 전세 혜택을 받은 의혹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일 처음부터 있었다. 몇 몇 야당 의원도 김 장 했다. 김 장관의 신고 재산은 9억원이었다 는 것은 상식적 의문일 것이다. 해임건의안 시판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당 매우 부적절한 말이었지만 김 장관은 바로

더민주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는 김 장 용이 없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요건도 못 갖춘 셈이다. 결국 더민주와 정 爭)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야대(野大)의 아니다.

극성 야당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낼지 몰 지긋지긋해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오 은 행태를 보이니 국민 귀엔 허구한 날 깨 층만 바라보는 '너 죽고 나 죽자'식 독기는 어진다. 특히 집권을 기대한다는 야당은 스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그리는 손연재

경제 박해묵 기자

의 '수채화 그리는 손연재'를 선정했다. 나비처럼 우아하게 선율을 그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사설

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

임건의안이 24일 국회에서 여야의 막장 다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했다. 지난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당은 어제 의총을 의장이 '대정부 질문 종료 후 해임 건의 상 은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방법 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장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국민 상당수가 무엇 취를 놓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회가 이렇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를 들고 있다. 초저금 를 산 의혹, 친모가 부당하게 빈곤층 의료 부에 대해선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지적이 관 해명을 수긍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비리가 있을까 하 에는 김 장관이 출신 대학 동문회 SNS 게 했다'는 글을 올린 것도 사유에 포함됐다. 사과했다.

장관이 어떤 업무를 잘못했는지에 관한 내 런 게 있을 리도 없다. 해임 건의의 형식적 의당의 해임건의안은 감정적이고 정쟁(政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라도 많은 국민은 이런 감정 · 오기 정치에 기에도 지쳤는데 야당도 하나도 다르지 않 지고 부서지는 소리만 들린다. 자기들 지지 정당만이 아니라 국가의 자해(自害)로 이 스로 그 가능성을 깎아 먹고 있다.

〈조선일보 9월 24일〉

뉴스의 주체는 누구인가

방송시평

유자효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파리 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방송 뉴스의 주체는 누구인가? 방송사인가? 뉴스를 전하는 사람인가? 편집자인가? 우리 텔레비전에 서구식의 앵커가 등장하면서 한 번쯤 해봄직한 생각이다.

라디오 시대 뉴스는 아나운서가 전했다. 기자는 말 그대로 기사를 쓰는 사람이었고,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기사를 아나운서가 읽었다. 라디오에 뉴스쇼가 도입되면서 기자들이 보도에 직접 등장하기 시작했다.

흑백 TV 시절부터 앵커의 개념이 도입됐다. 이것은 AFKN을 통한 미국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주한 미군을 위한 방송을 통해 미국 3대 네트워크의 뉴스들을 보게 됐고, CBS의 전설적 앵커인 월터 크롱카이트 같은 언론인들의 뉴스 진행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TBC 석간, MBC 뉴스데스크, KBS 9시 뉴스가 등장했다. 봉두완, 이득열 같은 스타 뉴스캐스터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이 과연 당시 뉴스의 주체였을까?

전문 방송인을 뉴스담당 사장으로 영입한 JTBC의 손석희 사장.

우리 TV의 메인 뉴스는 대체로 젊은 방송 기자들이 남성 앵커로 그리고 젊은 여성 아나운서나 가끔은 여기자들이 동반 앵커를 해왔다. 따라서 그들은 뉴스의 전달자일 뿐, 뉴스의 주체가 되진 못했다. 뉴스의 편집은 보도책임자가 주재하는 편집회의에서 정해졌고, 앵커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기만 하면 되었다. 멘트도 대부분 기자가 써준 것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손질한 것이었다. 앵커가 멘트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지만 편집진의 의도에 따른 것이어야 했다. 그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종편시대의 도래와 함께 JTBC가 등장하면서 TV 뉴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전문 방송인을 뉴스 담당 사장으로 기용하고 그에게 뉴스를 맡긴 것이다. 이것은 미국 3대 네트워크의 뉴스 운영에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

JTBC의 손석희 사장은 뉴스 편집의 최종 책임자이다. 그 최종 책임자가 뉴스를 직접 진행한다. 이것이 타 방송사의 뉴스와 같을 수 없다.

JTBC 뉴스룸의 멘트는 JTBC의 소리라고 보아야 한다. 뉴스의 책임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앵커 브리핑에서의 주장은 책임자가 사시(社是)에 벗어난 주장을 할 리 있는가? 시켜서 하는 타사의 앵커가 과연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매일 뉴스 끝에 손석희 사장은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타사의 앵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래서 편집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는 뉴스는 힘과 설득력, 신뢰가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9일, 뉴스 진행 중에 진도 4.5의 여진이 전국을 엄습했을 때, 곧바로 지진 특보 체제로 전환해 기자와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북핵 문제로 초청했던 정치인과도 지진 대책을 대담한 순발력도 앵커가 뉴스 책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리포트들을 진행하거나 뉴스를 끝내고 정규 프로그램을 내보낸 타사의 경우와 비교되었다. 그날 JTBC 뉴스룸은 연장 방송되었다.

과거 KBS의 박성범 보도본부장이 9시 뉴스를 직접 진행했었다. 박 본부장이 탁월한 방송인이었고, 그가 보도본부장으로서 메인 뉴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 KBS 뉴스는 힘이 있었다. 만일 박 본부장이 뉴스 진행을 계속할 수 있었더라면 보도 책임자가 뉴스를 전하는 앵커 체제의 한국 뉴스는 일찍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우리 뉴스는 편집자와 전달자가 이원화돼 움직여 왔다. 그것이 JTBC 뉴스룸의 등장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JTBC 뉴스룸의 주체는 손석희 사장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방송 뉴스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광고로 운영하는 MBC와 종합편성방송들,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만 하는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선(善)이고, 편향성을 드러내면 악이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미국의 언론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지지 후보를 밝힌다.

그것은 선거 상황의 공정 보도와 별개의 문제이다. 자사의 정치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선거 보도는 공정하게 한다. 그것이 고급 언론이다.

이것은 우리의 언론 풍토와는 낯설어 보인다. 그러나 언론의 중립성만으로 묶어두기에는 한국의 정치 · 사회적 상황이 다양화 · 다변화되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의식적 · 사상적 성장을 뜻한다.

방송사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밝히고 당당하게 선거 보도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방송사가 편향 보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종편시대의 혁명…신뢰쌓는 사장의 뉴스진행

인생 2막

나 이제 구름을 갈고 달을 낚으며…

낭만있는 桃月마을 내려가 디지털로 세상과 소통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를 따라 오르면 산 중턱에 이석희 전 KBS 보도국장의 별천지 도월마을에 이른다.
도연명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의 도(桃)와 이백의 시 경운조월(畊雲釣月)의 월(月)자를 따서 이름한 도월마을은 "구름을 갈고 달을 낚는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유토피아를 꿈꾸며 직접 작명한 마을 이름이다.
해발 200m의 백족산이 좌우로 살포시 마을을 품어 안아 마치 삼태기 안에 들어앉은 형상이어서 골짜기 이름도 삼태골이다.

이석희 전 KBS 보도국장

글·사진 **김선옥** 본회 편집위원

桃月마을

나 이제 아침 안개 산수화
같은 도월에 사노라

까투리 날고 고라니 뛰는
산이 좋아 도월에 사노라

나 이제 복사꽃 그윽한
향기에 취해 도월에 사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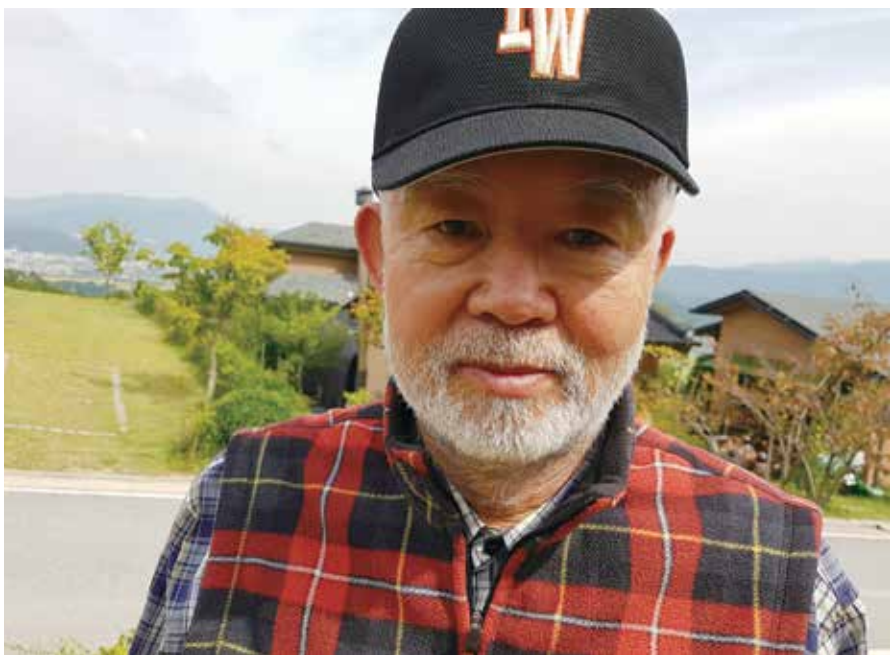
반딧불 춤추고 별빛 황홀한
밤이 좋아 도월에 사노라

나 이제 명리 떠나 이웃이
도란도란 도월에 사노라

서로 돕고 웃으며 사는
정이 좋아 나 이제 도월에
사노라.

이 낭만적인 마을에 이석희 회우(75)가 살고 있다. 이석희 회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KBS 청와대 출입기자와 정치부장, 보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직을 두루 거쳤다. KBS 근무시절에는 동안(童顔)이었지만 지금은 텁수룩한 구레나룻에 턱수염이 무성해 마치 "노인과 바다"의 헤밍웨이를 닮아 보였다.

2008년 〈미 쇠고기 파동〉때 KBS전 보도국장이란 실명으로 "냉정을 되찾아 이해관계와 정파를 초월해 비극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칼럼을 써서 당시 침묵하던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지금도 그는 사회문제에 대해 열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구름을 갈고 달을 낚는다"는 이석희 전 KBS보도국장을 도월에서 만났다.



별천지 시골마을서 유유자적하며 정치평론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청와대 출입7년…단호한 박정희 대통령에 감명
언론은 세상 정화시키는 산소역할 담당해야

– 지난 9월 10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칼럼을 썼더군요.

"북한의 조선중앙TV는 9일 아침 핵실험을 보도하면서 〈우리는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다〉면서 핵 무력의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고래고래 외쳐댔습니다.

10KT 규모의 핵실험에 대해 한국-미국-일본-UN등 국제사회는 대북 규탄과 대응책 마련에 숨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판의 언동을 보면 임진왜란 직전 선조 때의 조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언론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꾸짖었던데?

"북한은 8월 24일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고 〈성공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라고 성취감에 날뛰고 있었습니다. 고각도로 함경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했는데도 500여km 날아갔는데, 만약 정상 각도로 쏘았다면 2000~2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발사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안보현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중한 문제인데도 야권은 정부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언론은 그런 정치판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청와대 비서관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국가와 국민 공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관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권을 길들이는 개인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 깡패일 뿐입니다."

– 청와대 출입 기자를 7년여에 걸쳐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연을 공개한다면….

"독도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도문제로 일본은 끈질기게 미국에 로비를 펼쳤습니다. 존슨 한국방문 때 이야기입니다. 존슨은 한국 방문 중"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그리고 두 나라는 공동 등대를 설치하라"라고 압력을 넣자, 박정희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면서까지 단호했습니다. 또 1976년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 위기로 일컬어지는 판문점 도끼만행 때의 의연한 결의가 생각납니다.

판문점 공동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지휘하던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배럿 중위를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 철모와 군화까지 준비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수십 대의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 3대,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을 출동시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대통령께서는 직접 한국군 제11 공수 특전단을 투입 미르나무를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도발하면 사리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계획이 알려지자, 김일성도 마침내 사과문을 보내 굴복하게 됐죠."

– KBS 퇴직기자의 활발한 모임인 여맥회 이름도 직접 지으셨다고 하던데?

"KBS에서 퇴직한 뒤 한국방송개발원에 근무하던 97년 봄쯤으로 기억됩니다. 같이 근무했던 정종진 형이 이승 · 장순재 · 김옥 등 몇 분을 초대해 점심을 했습니다. 그 후 계속 만나면서 부담을 덜기 위해 만원 한 장씩의 모임이라 해서 일매회라 칭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끼리 낄낄대는 "낄낄 모임"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매회가 뭐냐 해서 그건 아명으로 두고 여의도에 살아 움직인다 는 뜻을 담아 '汝脈會'라 개명했죠. 몇 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큰 덩치로 커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 근래 언론을 보는 견해와 후배기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언론은 지식산업입니다. 그 구성원은 샐러리맨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기업이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기능을 발휘할 때 진정한 언론이요 사회의 목탁이며 정부와 정치의 부패를 막는 소금인 것입니다.

제 스스로 썩고 병들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언론 사주나 언론인 개인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위험한 도구는 없습니다. 언론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청량감 넘치는 산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wiselydw〉

원로탐방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뉴스와 함께…

윤임술 전 신아일보 편집국장 · 언론연구원장

"요즘 기자들 고생 많은데, 정치가 별로야" 윤임술씨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챙겨 본다고 말한다.

70여 성상 '명편집자' 명성날린 언론 달인
95고령에도 매주 수영하며 노익장 과시

천고마비가 열리는 계절, 지하철 신분당선을 타고 성복역에서 내렸다. 사진 촬영을 맡은 이철영 편집위원과 함께…

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역으로 나오신다고 하신다. 어제 퇴원하신 분이… 고사하고 회원수첩에 나온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엘지 빌리지 2차아파트를 찾았다.

62평이라는데 아파트가 넓게 느껴지지 않았다. 2002년에 이사했고 며느리와 손녀 둘과 함께 거주하신단다. 책들로 꽉 채운 거실은 옮겨다니기도 쉽지가 않았다. 윤 회우는 어제 퇴원하신 분 같지 않게 건강해 보였다. 쇼파에 앉으며 "올해 연세가 아흔 셋이시지요!" 했더니 "아니 아흔 다섯이야. 호적으로 아흔 셋이고 우리 나이로 아흔 다섯이지."라고 하신다. 거실이 좀 어둡다 싶었는데 전등을 켜지 않았고 에어컨은 없었으며 선풍기 한 대가 늦여름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운동은요?〉 하고 여쭸더니 "걷기를 주로 하죠. 아파트 주변을 매일 2천보 정도 걷구요. 일주일에 한두 번 수영을 하죠."

이어지는 대화다. 〈식사는 요?〉 "보통처럼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일목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잘 안 나갑니다."

〈요즘 어떻게 소일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도 보구요."

〈여전히 뉴스와 함께 생활하시네요? 요즘 뉴스는 사드 배치와 정치 뉴스가 주가 되고 있잖습니까? 정치 뉴스 보신 소감이랄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치 잘해야 될 텐데, 별로 잘 하는 것 같지 않아?"

〈선배 입장에서 후배 기자들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들 고생 많더군, 힘든데 잘 하고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닫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았다.

노년의 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여쭤 봤으나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건 알아서 뭣해. 그건 프라이버시야."라며 꾸짖기도 하셨다. 1시간쯤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그만하지라신다." 불편하니 그만 가라는 말씀이었다. 2년 전쯤에 부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10여 년 전에 외아들이 타계했다는 얘기도 인터뷰를 끝낸 뒤에 일목회 회원인 선배를 통해 들어야 했다. 더구나 아드님 얘기를 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시기에 더욱 가정사 얘기는 물을 수가 없었다. 20대 초반의 외손자가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연구소의 엘리트 연구원이라는 사실과 두 손녀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었다.

일목회 회원인 그 선배는 윤 원로회우가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좀 약해지신 것 같아 작년 초부터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두 번인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원로회우는 본래 깐깐하시고 말도 없으시고 술도, 맥주 한 잔도 드시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물론 담배도 안 태우셨고, 그래서 장수하시는 것 같다고도.

대한언론은 2009년 11월호 실버파이팅에서 윤임술 원로회우는 이름 없이 시작해 이름 날린 명 편집자라는 제목으로 1945년에 기자를 시작해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신아일보 창간 편집국장 등을 거치면서 편집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윤 원로회우는 언론연구원장과 지방언론 육성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재작년까지도 골프를 즐겼다는 윤 원로회우의 서재에서 숱한 책들 가운데 〈자율신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는 제목의 작은 책 한 권이 눈길을 끌었다.

대담 : **호천웅** 본회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본회 편집위원

제4회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우로부터 해설자 이정식 사장, 테너 이동현, 이안삼 작곡가, 소프라노 이현정, 정선화, 이윤숙, 바리톤 최강지.

이정식 회우가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가곡설명 · 성악가 열창…전 과정 유튜브 올려

우리 시에 선율을 입힌 가곡의 작사, 작곡의 배경과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가 음악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회를 시작으로 격월로 9월 23일까지 4회를 진행했고, 오는 11월 25일 제5회를 개최한다. (주)서울문화사의 〈여성경제신문〉과 아리수사랑 가곡카페, 이안삼 가곡카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장소는 3백석 규모의 서울문화사 별관 강당.

해설자는 에세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저자인 본회 회우 이정식 서울문화사 사장이다. 이 사장이 먼저 소개할 가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남녀 성악가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다.

9월 23일의 제4회 때는 홍난파 곡 〈사랑〉, 박태준 곡 〈동무생각〉, 현제명 곡 〈희망의 나라로〉, 윤용하 곡 〈보리밭〉 등 10여곡에 대한 해설과 연주가 있었다. 해설자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로 시작되는 〈동무생각〉의 무대인 청라언덕을 찾아갔던 이야기로 해설을 시작했다.

〈사랑〉 〈희망의 나라로〉와 관련해 우리 가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홍난파, 현제명 두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두 사람은 민족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37년 구속수감됐다가 풀려나온 후 친일음악단체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일제하 우리 민족의 수난사가 가곡의 역사에도 그대로 들어 있었다.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는 전과정이 녹화돼 유튜브와 관련, 가곡카페 등에 올려진다.

매회 10~12곡 가량이 소개되어 11월 25일에 열리는 제5회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가곡 50여곡이 다뤄진다. 음악회에서는 해설자인 이정식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촬영하거나 수집한 귀중한 사진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소개되는 가곡과 관련한 간략한 자료들도 제공된다.

이처럼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해설과 연주가 함께하는 가곡음악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음악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11월 25일의 제5회 이후에도 이같은 해설 음악회를 계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새로 탄생할 한국언론기념관은…

액티브 시니어 시대 향도가 되어라

앞으로 3년 후 한국언론기념관 개관식이 은평구 옛 기자촌에서 전·현직 언론인과 언론단체 단체장, 정부를 대표한 대통령과 3부 요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대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모습을 그려 본다.

고 명 진
전 한국일보 사진부장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장

언론인 제2인생 위한 실버문화의 산실
'길위의 인문학'처럼 정부지원도 필요

세대간 소통 · 열려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리 언론문화 정립시키는 소중한 역할 담당

한국언론기념관의 탄생을 바라보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2012년 5월24일 강원도 산골마을 영월의 아주 작은 농촌마을의 폐교에 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디어기자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처음부터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사용했던 자료를 모아 귀촌위 전형적인 사랑방 준비를 위했던 것이 박물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바로 지붕없는 박물관 영월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첫째, 마을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둘째, 기자로서의 나눔과 소통의 역할을 다하자.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언론 가족의 힐링 공간을 만들자.

나름대로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지금도 꾸준히 사명감을 갖고 박물관 운영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언론기념관은 대한언론인회 회원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나눔과 봉사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한국언론기념관은 실버 문화의 출발점이기를 기대한다. 무엇에 앞서 100세 시대의 현장을 떠난 언론인들의 제2의 인생을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버문화의 산실이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현장에서 불태웠던 소중한 기자정신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기념관은 액티브 시니어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말하면 언론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내일을 위한 박물관 기능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 문화복지를 위한 행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액티브 시니어로 구성된 시니어컬처클럽(Senior Culture Club)의 운영을 권유하고 싶다. 활발한 사회활동은 현역에서 떠난 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여가활동도 여의롭지 못한 실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과 공존의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길 위의 인문학'이란 지원사업이다.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미술관 길위의 인문학.

인문학을 통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미디어기자 박물관을 찾은 관람자들에게 신문제작을 설명하는 학예사.

한국언론기념관도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문화와 언론의 융복합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언론인회 '한국언론문화원 TF' 팀에서는 각국의 언론박물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환경에 맞는 언론문화원의 소중한 가치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도 대한언론인회와 은평구청에서 구민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한국언론문화원의 준비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언론재단의 연구원과 해외특파원들이 세계 각국의 언론문화원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한국언론기념관의 설립은 단순이 대한언론인회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언론문화를 정립시켜 나가는 소중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시니어 컬처 디자이너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하다.

시니어 컬처 디자이너(Senior Culture Designer)는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시니어들이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들어 주고 가족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순직한 기자들의 소중한 기자정신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한국언론기념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진행하는 시니어기자단의 협업도 연구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시니어의 참여가 경제활동과 연계되고 수익을 담보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월 미디어기자 박물관에 전시된 언론자료들.

한국언론기념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꿈과 끼를 키워주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언론기념관도 국민 모두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 한국언론기념관이 개관과 더불어 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언론인 가족이 현장에서 사용하던 소중한 유물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문과 방송 · 통신사를 비롯한 언론단체와 학회에서도 한국언론기념관이 역사에 길이 남을 공간이 되도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때 그사건

‘으스스 서빙고 시절’ 첫 옥고 치른 유홍구 기자

‘안보상 위해’에 ‘절도죄’까지

구 월 환
본회 회우
전 연합통신 상무

어언 42년 전의 일이다. 유신의 찬바람이 심하게 불던 1974년 1월 합동통신 국방부 출입 유홍구 기자가 보안사에 끌려갔다. 처음에는 겁주기가 아닌가 했으나 하룻밤이 지나고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때 사회부에서 법조를 맡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울지검 공안부로 갔다. 정명래 부장검사에게 유기자 연행사건을 얘기했더니 “어? 벌써 (영장이) 떨어졌는데…” 하는 것이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구속 언론인 제1호가 된 것이다. 영장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다 절도죄까지 추가되어 있었다. 병무청 자료를 슬쩍했다는 것이다. 기사내용이라야 신체검사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등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10월 유신 때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군기보호법은 안보상 위해행위를 철저히 막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 관계 취재를 철저히 봉쇄하고 발표 외에는 쓰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다.

언론계에서 첫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하필 내 옆에 앉은 동료가 첫 희생자로 걸려든 것이다.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유승범 편집국장 등 회사 간부들과 함께 김치열 검찰총장을 찾아갔다. 김 총장은 사건내용을 경청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도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의외로 시원한 답변을 주었다. 우리 일행은 좋아하며 돌아왔는데 다음 날 그런 기대는 완전히 깨졌다.

김 총장은 출근하자마자 아침 일찍이 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소장이 법원에 도착하던 날, 서둘러 유태흥 법원장(전 대법원장)을 찾아갔다. 그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내 설명을 경청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가 말이야, 도와줄 것은 배당밖에 없는데…” 빨리 이름을 대라는 눈치다. 기자실로 올라와 베테랑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황주명 판사가 좋다는 것이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권총을 찬 보안사 요원이 판사방에 들어와 꼭 실형을 때려달라고 사정하는 일도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황 판사의 기가 죽을까봐 그의 방에 들락거렸는데 차마 긴말은 하지 못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쓴 웃음을 짓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황 판사의 결단으로 유 기자는 74년 3월13일

‘신검 대상자 몇명…’ 보도가 군기보호법 위반
권총 찬 보안사 요원, 판사에 ‘실형 때려달라’

1974년 3월 13일 유홍구 기자(왼쪽)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언론인 1호로 구속 2개월 만에 서대문 구치소를 빠져나올 때의 모습. 앞은 필자.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해 연초부터 2개월간 실형이나 집행유예냐, 보안사의 자존심이냐, 합동통신 나아가 언론계의 자존심이냐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 법조 기자단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소동이 있은 지 3년 후 황 판사는 법원을 떠났고 그후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법조계를 리드한다는 평을 들었다.

연합통신 상무로 퇴직한 유홍구 기자는 그 건장하던 체구에도 불구하고 3년 전 73세로 별세했다. 사건 당시, 기사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병무청 공보관실 직원 정종락씨도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됐는데 그는 그후 합동통신에 특채되었다.

회우들이 펴낸 신간

어디일까요

유자효 詩선집

인간과 문학사 선정 ‘빛나는 시 100인선’ 중 하나. 그동안 저자가 발간한 12권의 시집 중에서 발췌한 대표작을 모았다.

본회 편집위원이며, 전 KBS 파리특파원, SBS 보도제작국장을 역임한 방송인이면서도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하고, 지용회 회장, ‘시와 시학’ 주간 등을 맡으면서 시인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저자가 삶의 발자취를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들을 엮었다.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삶의 궤적

첫 아기를 가진 시절 환희로웠던 아기의 춤을 비롯해 신앙생활의 단상과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 사랑과 해외여행의 추억 등 여러 궤적을 잔잔하고 단아한 글로 담았다.

7부로 나누어 수록한 70편의 시 숫자는 저자의 올해 나이 70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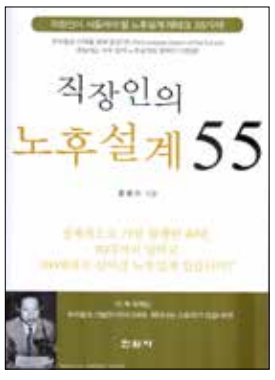
제1부 아기의 춤, 2부 짧은 사랑, 3부 누나의 손, 4부 안국역에서 교대역까지, 5부 심장, 6부 기회, 7부 세상에서 가장 큰 주먹 등에 사랑, 아기, 용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곱고 아름다운 작품을 149쪽에 실었다.

유자효 시인은 “글쓰기는 삶의 한 모습이다. 그중에도 시 쓰기는 영혼의 노래 부르기다. 그만큼 진실된 행위다. 그런고로 진실을 버리면 시도 떠난다. 진실하게 부르는 노래이니 가장 원초적인 예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선집을 엮으며 행복했으니 이제 긴 시를 쓰는 다음 역을 향해 떠나고 싶다.” 고 꿈을 말한다.

인간과 문학사 간. 149쪽. 정가 9,000원

직장인의 노후설계 55

홍용수 지음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NSI자산관리연구회 명예회장인 저자가 직장인은 물론 이미 은퇴한 시니어들까지 알아야할 재테크 55가지를 실감나게 엮었다.

이 책 속에는 부자가 된 기발한 아이디어와 감동 스토리, 55가지의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테크 전략 등 모두 70가지가 예시되어 직장인은 물론 퇴직 후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조금씩 늘려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자가 된 기발한 아이디어와 감동스토리

미꾸라지 양식으로 2배 수익을 창출한 이병철 회장의 재테크 전략, 아이디어와 끈질긴 집념으로 세계적 기업가가 된 정주영 회장의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

가난과 부패 속에 휩싸인 싱가포르를 "국민과의 5가지 약속"으로 세계적 부자 나라로 만든 리콴유 전 총리, 록펠러는 세계적 석유왕이 되었지만 55세에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서 헤매던 중 어려운 사람들을 크게 도와 점차 건강이 좋아져 98세까지 살아간 인생 스토리 등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재미있다.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70대 80대는 창업보다 부업에 치우쳐야 하며 100세를 살아갈 자산관리 방법, 사후 문제를 의식하여 증여. 상속에 대한 자산관리 방법을 미리 알고 적당한 시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55가지 사례에서 인용하여 노후에 후회 없는 인생을 누리도록 하는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진원사 간, 323쪽, 정가 15,000원.

그곳은 차라리 바다였다

동부시베리아 답사기

바이칼(Baikal) 호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명이다.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 되면 일기예보 때마다 바이칼이 고정 메뉴로 등장한다. 이곳에서 생기는 한랭성 고기압 때문에 강추위가 몰아친다는 것이다. 또 역사공부를 해보면 한반도에 살게된 우리 조상들의 발원지가 궁금해지는데 그곳이 바로 바이칼 호수 부근이라는 것이 거의 통설로 되어 있다.

최 서 영
본회 회우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

바이칼호를 가다

이처럼 바이칼 호수는 우리에게 있어 낯설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도 막상 이곳을 다녀온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특히 이곳 풍물을 직접 체험하고 쓴 글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친목 연구 모임인 관훈클럽에서는 지난 8월 하순, 바이칼 호수와 그 주변을 답사하는 해외여행을 가졌다. 나는 이 행사에 참가해 바이칼 호수와 동부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이르쿠츠크 등 시베리아의 광활한 들판을 두루 구경해 보았다.

바이칼 호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였다.

3만3,000㎢에 이르는 호수의 평균 수심(水深)이 750m, 가장 깊은 곳은 1,523m로 세계 제1의 기록을 가진 호수인데 지구 전체 담수량(淡水量)의 5분의 1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하도 깊고 넓은 호수여서 아직도 이곳 생물체에 대한 조사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바이칼 호수 생태학 박물관』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호수가에 자리 잡은 생태박물관은 2층 규모의 작고 아담한 건물이었다. 정문 옆 마당에는 수중 연구에 쓰였던 잠수정이 놓여 있었고 1층은 수족관, 2층은 전시장이었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이곳 바이칼에서만 사는 고유종인데 연어의 변형인 '오물' 투명한 물고기 '갈라만카나' 바다의 청소부로 불리는 민물새우 '에피슈라' 등이 유명했고 길이 1.8m, 무게 120kg의 철갑상어도 있었다. 그리고 바이칼 민물에 사는 유일한 물개 네르파(Nerpa)가 관람객의 인기를 독차지했는데 마치 큰 복어처럼 배가 불룩 나온 모습은 신기해 보였다.

바이칼 호수는 그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는 불가능했다. 배를 타고 30분 가량 물위를 달려 보았으나 망망대해를 가는 느낌이었고 이곳을 탐사했던 지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세운 『체르스키 전망대』에 올라가 보았으나 눈에 보이는 바이칼은 전체 호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이다. 동서 두 지점 사이에 열한 개의 시차점이 있다. 그래서 우랄산맥을 경계로 그 서쪽을 유럽 러시아, 그 동쪽을 시베리아로 부르는데 시베리아도 너무 넓어 그것을 넷으로 쪼개어 서부, 중부 동부, 극동 시베리아로 나눈다. 바이칼 호수는 동부 시베리아 남쪽(몽고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 동부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는 이르쿠츠크, 인천국제공항에서 4시간이 걸린다. 바이칼 호수는 이르쿠츠크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데 이 길을 달려보면 시베리아가 어떤 곳인지 체험하게 된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작나무 숲, 길은 이 밀림의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울창한 숲은 글자 그대로 장관이다.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로 이루어진 숲이 끊기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밀림이 이어진다. 이런 풍광이 끝없이 계속 되풀이된다. 이것이 시베리아의 모습이다.

동부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페테르부르크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바이칼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유일한 강(앙가라 강)을 끼고 있는 이 도시는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지대가 된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정치범의 유형지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와도 작은 관계가 있는 곳이다.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직후 러시아에 살고 있던 한국인이 1918년 1월 22일, 이르쿠츠크에 모여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산당 조직에 착수했다. 김철훈, 오하묵 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가 그것인데 이것은 곧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이 싹튼 요람지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 밀림의 나무로 지은 목조건물이 많은 특색 있는 도시였다. 1870년 큰 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그것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에 한 곳에 모아놓은 130번 거리 나무집마을은 이곳을 찾는 사람이면 꼭 둘러보아야 할 관광명소였다.

이르쿠츠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스파스카야 교회. 시베리아 동물과 수공예품을 전시하여 민속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붉은 벽과 푸른 지붕이 대조를 이루는 웅장하고 화려한 러시아정교의 카잔스키 성당, 바로크 양식으로 지은 명품 즈나멘스키 수도원, 동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스파스카야 교회, 정치범으로 유형수가 되어 이곳에서 살았던 발콘스키 공작의 집 등 역사적 명소도 많다. 특히 즈나멘스키 수도원은 제정 러시아의 전제정치를 개혁하려했던 귀족 출신 장교들이 반역죄에 몰려 처형되었던 곳인데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와서 함께 죽은 부인들의 묘가 있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순애보의 현장이기도 했다.

나는 바이칼 호 여행의 마지막 날 이곳의 토착민인 브리야트족의 민속마을을 찾았다. 이르쿠츠크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자치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몽골족의 후예들인데 시베리아 전역에 40만명 정도가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조상이 남긴 유물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민속춤을 추는 브리야트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바이칼 호 부근에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우리 고대 역사의 가설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동포가 극동 시베리아(연해주)에는 수십만명이 살고 있는데 바이칼 호와 이르쿠츠크가 있는 동부 시베리아에는 수백명 밖에 되지 않는 사실도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농사가 잘 안 되는 동토(凍土) 지대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주마간산격인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나는 시베리아가 지니고 있는 특유함과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광활한 자연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의 밀도가 낮은 탓인가. 아무튼 우리는 너무 시끄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배타고 30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大湖'
한국 관련 역사적 명소 많은 이르쿠츠크 들러

일부 인류학자, 민속학자, 동양사학자들이 한국 민족의 한 시원지로 추정하는 바이칼호.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孝
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ANAC 안마의자

♣ 백내장 수술 체험기

파란 하늘 빛이 살아났다

최병요
본회 편집위원

20여 가지 정밀검사 결과 수술 가능
1주일 후 '약주드셔도 됩니다' 에 환호

비 온 후 맑게 갠 하늘. 송나라 6대 황제 휘종(徽宗)은 이를 우후청천(雨後晴天)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파란 하늘색을 옥색, 또는 쪽빛이라고 표현해왔으며 영국은 로열블루(Royal Blue)라고 해서 왕의 색깔로 삼았고 프랑스는 국기인 삼색기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여타 국가에서는 손쉽게 코발트색이라고 한다.

백내장을 수술하면서 갈아 끼운 수정체 렌즈를 통해 그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붕대를 풀고 하룻밤을 지내 눈을 떴을 때 나는 파랑색깔을 처음 보았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보았겠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파란색 계열을 인식하지 못하는 색맹은 아니고 파란색이라고 여겼던 색깔은 사실 군청색이었거나 옥수수꽃 파랑이었던 것이다. 마치 오래되어 때가 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의 밝은 세상이 열린 것과 같았다.

몸이 천 냥이라면 눈이 구백 냥이라고 했다. 동네 안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망설임 없이 GS안과를 찾았다. 친절한 안내를 받아 무려 20여 가지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이었다. 안구에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백내장 수술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서 백내장으로 그쳐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그러나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눈에 칼을 댄다는데 마냥 고마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혹? 혹시라도?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하! 그런데 기우였다. 김무연 원장의 "백내장은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예약질병입니다. 수술 장비가 발전하고 시술기술이 안정되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이 모든 불안을 가시게 했다.

수술 일정은 이우진(李雨鎭) 회우가 잡아뒀다는 날, 같은 시간으로 정했다. 친구끼리 옆에서 지켜보아주면 훨씬 든든할 것 같아서였다. 15분간의 수술 끝에 곧 바로 귀가, 붕대를 풀었다. 다음날 나머지 한쪽 눈 수술도 마쳤다. 우리 둘은 '눈깔 바꿔치기 동기'가 됐다고 시시덕거리면서 귀가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바로 그 눈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가 '동기'이기는 해도 '쌍둥이'가 아닌 것은 친구는 원시교정 렌즈를 끼었고 나는 근시교정 렌즈를 끼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오른쪽부터 수술했지만 나는 왼쪽부터 수술했다. 으레 오른쪽부터 하는 통상을 벗어나면 집도 의사의 집중도가 높아지리라는 나름대로의 꿍꿍이에서 나온 작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술할 눈 쪽의 눈썹위에 빨간색 딱지를 붙이는 등 신경을 모으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의사가 들으면 고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고작 일주일 후 회복상태를 확인한 김 원장의 첫 마디는 파란 하늘색을 보게 해준 것보다 더 신선한 충격이었다. "오늘부터는 샤워도 맘대로 하시고 약주를 드셔도 됩니다."라는 것이었다. 친구는 듣기 민망할 정도의 탄성을 질렀다.

앞으로 60년간은 너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간호사와 보조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배웅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할까. 예쁘고 상냥한 간호사와 보조원들의 말투가 백화점 점원의 말투를 흉내 내고 있어 친절의 진정성이 반감되는 기분이었다. '아빠, 식사하실 게요.' '원장 선생님 전화 받으실 게요.'라고는 하지 않지 않는가 말이다.

어쨌든 나는 이렇게 대한언론인회에 구백 냥의 빚을 지게 됐다.

건강 강좌

진·인·사·대·천·명+고

치매잡는 뇌 관리 7계명

김현우
단국대 의대 명예교수

같은 말 반복은 기억력 감퇴 때문
알콜성은 원인치료로 치유 가능

본회에서 매월 시행하는 9월 강좌에서 김현우 박사(71. 단국대 의대 명예교수)는 노후에 가장 무서운 병, 치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김 박사가 강의 전날 어떤 모임에서 어느 두 분이 치매가 의심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화제가 치매로 떠올라 다른 참석자들도 가장 두려운 병이 치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김 박사는 그러나 치매는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초기에 잘 관리하면 진행을 막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치매 초기 증상은 기억력 감퇴, 같은 말 반복 등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기억력 감퇴 때문이다. 물건 둔 곳을 잊고, 스케줄을 잊는다. 치매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치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다. 치매에도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알콜성 치매는 원인 치료로 치유된다.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도 우울증을 고치면 치료가 된다.

알츠하이머 형은 치료가 어렵지만 잘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뇌 문제도 치매가 될 수 있다.

치매는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많다. 초기엔 잘 모르다가 많이 진행돼야 아는 경우가 많아 완치가 어려워지는 수가 많은데 희망 갖고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12%가 치매라고 하는데 노인이 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치매는 뇌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온다는 학설이 있지만 뇌에 단백질이 더 쌓이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일단 초기인가 의심되면 빨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혈관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으로 100에서 역으로 7을 계속 빼는 방법도 있다. 치매 환자는 처음엔 93이라고 맞혔다가 그 다음엔 계산을 못한다.

치매는 정신건강과 소관이다. 정신건강과 가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삼성의료원 정신과 전문의 나덕열 박사는 치매예방법으로 '진인사대천명고'라는 치매 예방 7계명을 주장한다.

그 계명은 다음과 같다.

진 : 진땀나게 운동하라. 운동은 주 4일 이상 하루에 4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인 :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담배를 끊어라.

사 :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많이 가져라.

대 : 대뇌활동을 활발하게 하라. 뇌를 많이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고스톱은 도움이 안 되고. 지적 게임인 속담풀이나 퍼즐은 유익하다.

천 :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라. 끊으라는 건 아니고, 급하게 마시거나 독주를 많이 마시거나 안주 없이 마시는 것은 해롭다. 조절해서 마셔라.

명 : 수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고기는 수명을 재촉한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적이 된다. 아침 식사는 꼭 하고,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고 :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을 없애라.

나 박사의 위 7가지 계명 외에 김현우 박사는 "꼭 숙면을 취하라,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없게 하라"는 것을 덧붙였다.

알 림

10월 정신건강 강좌

강사 : 김현우 박사 (단국대 의대 명예교수)
일시 : 2016년 10월 14일 (금)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12층 소강의실
주제 : 스트레스 관리

10월 한방침술 봉사

봉사팀 : 두나미스 의료봉사단 3명.
일시 : 2016년 10월 20일 (목) 오후 2시
장소 : 소공동 주민센터 4층 강당 (시청역 7번 출구 100m 스타벅스 후문 앞)

생활 에세이 — 살며 생각하며

요리 배우는 남자

장석영 본회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요즘 요리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오래 전에 아내가 뉴욕에 사는 아들 집에 갔을 때 몇 달간 혼자서 밥 짓고, 빨래를 해 본 경험이 있지만, 반찬은 시장에서 사다 먹었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어 본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병고로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일이 있는데, 그 때 아내가 나에게 만약을 위해서 나도 요리 하는 법을 배워두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괜찮다면 지금 당장 요리학원에 등록하라고 강력히 권유하는 게 아닌가.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곧바로 다닐만한 요리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요리강습을 받기로 하고 아내에게 알렸더니 잘됐다며 반긴다. 그러면서 아내는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내가 두 시간씩이나 서서 요리를 배우다가 자칫 허리에 더 무리는 가지 않을지 걱정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한 시간 이상 걷기운동을 해도 허리가 끄떡없는데다 한 주일에 한 차례 한방 치료를 받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지금은 한식 위주의 일반요리를 강습하고 있으나, 이어서 양식, 중식, 일식까지 다양한 나라의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수업은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두 달 좀 넘게 배웠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조리 실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꾸준히 배우면 유명한 셰프 못지않은 요리사가 되리라는 희망에 부푼다.

첫 수업시간 강의실 문을 여니 먼저 온 주부들이 강사님과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는 나 혼자였다. 순간 무색해졌다. 이날 수강생 10여 명은 대개 30~40대 주부들이어서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단박 마음을 트고 말을 걸어오는 예의 바르고 명랑한 분들이어서 그들과 함께 배우는 수업시간은 신선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어르신'이었다. 이 나이에, 그것도 남자가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정성스런 마음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요리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여 노심초사하면서도 한 그릇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니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낀다.

지금까지 만든 요리는 집에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가족에게 가지고 가서 함께 즐겁게 시식을 했다. 가족들은 매 번 맛있다고 한다.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솜씨가 느는 것 같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요리 강습을 받으면서 요리에 관한 탐구정신도 높아진 것 같다. 요리 관련 영화도 찾아보고, 요리방송 프로그램은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 됐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음식에 관한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많이 방영 되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든가,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한다.' 또는 '먹는 것이 하늘이다.' '밥이 약이다'와 같은 우리 속담을 보면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요리를 배우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은 요리도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쓰듯 내면의 형상이 알게 모르게 요리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요리의 맛은 없어진다. 최선을 다한 수고스러움에서 요리의 맛은 완성도가 높아지고 원하는 맛이 우러난다.

쑥쑥 늘어나는 레시피…혼자 빚는재미 쏠쏠
요리도 한편의 글을 완성하듯 정성을 다해야…

또 하나 음식은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설거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요리를 할 때 너무 센 불에 올려놓으면 재료들이 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땐 그릇의 바닥을 닦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모든 그릇들이 다음번에 다른 수강생이 요리를 할 때 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니 깨끗이 씻고 뒷정리를 말끔히 해 놓아야 한다. 물론 요리하기 위해 다듬는 재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오늘도 사랑의 마법에 빠져 한 걸음에 요리강습이 열리는 봉사 센터로 간다. 추분이 지나면서 가을 기운이 완연해졌다. 하늘은 높아지고 가로수 잎은 하나 둘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길 옆 숲에선 귀뚜라미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가족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배우러 간다는 생각에 기분은 마냥 들떠 있다. 역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인 것 같다.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리 배우러 가는 남자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시니어 건강 리포트 ㊺

조기 완화치료 말기 암 환자 삶의 질 높인다

이광영
본회 회우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치료가 불가능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치료보다 일찍부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완화치료를 할 때 삶의 질을 보다 높여 줄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순응과 정리도 잘 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끈다. 미국 하버드 대학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심리학연구소 책임자인 그리어(Joseph Andrew Greer) 박사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9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ASCO)에서 발표했다.

완화치료(palliative care)는 말기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통증이나 심신의 심한스트레스 등 증세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완화치료의 목적은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두고 있다.

그리어 박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받은 폐암과 소화기계 암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진단 받은 직후부터 암 치료와 조기 완화치료를, 다른 그룹은 암 치료만을 받게 하면서 두 그룹 모두 진단 후 12-24주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완화치료그룹은 치료그룹 보다 더 활동적이고 다른 일에 참여하는 등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어 박사는 조기 완화치료그룹은 12주까지 치료그룹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24주 후 우울증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나 가족과 상의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치료그룹에서는 14%였지만 조기 완화치료 그룹에서는 이 보다 2배를 넘는 30%에 달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에서 조기 완화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단 자체를 잘 받아드리고 생을 더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완화치료야 말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도 함께 높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박사는 말기 암 환자의 상당수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치료의 끈을 놓지 않고 항암제와 방사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완화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교감을 가질 뿐 아니라 생을 보다 잘 마무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생의 마무리, 가족과 교감시간 더 갖길

본회 산악회 **가을산행 만끽**

산악회 회원일행은 인천 장봉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8대 회장에 최귀조 회우 선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 인천 앞바다 장봉도에서 가진 추계 산행 겸 정기총회에서 제8대 산악회 회장에 최귀조 회우(본회 부회장 · 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선임했다.

△ 명예회장 : 이상호
△ 회 장 : 최귀조
△ 부 회 장 : 이우진, 장 옥, 정창기
△ 총부(부회장겸) : 나용경
△ 산행대장 : 윤산학,
부대장 : 김조영
△ 감 사 : 박석흥, 김휴선

회우동정

왜곡없는 한국정치사' 집필

정구호(전 KBS 사장·경향 사장)회우= 8순을 넘긴 나이에도 아직 정정한 모습으로 매일 사무실에 나가면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사를 정확하게 정리한『왜곡 없는 한국정치사』를 집필 중이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경향 원로회우 초청 오찬회

심상기(전 경향 사장)회우= 경향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6일 원로회우 10여명을 초청, 오찬회를 가지고, 100만원의 찬조금을 기탁했다.

'4·19전야 잃어버린 역사' 발표

박석흥(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본회 편집위원장) 회우= 8월 29일 오후 5시 30분 르네상스 호텔에서 우남소사이어티(대표 김영수)주최 한국현대사 연구모임에서 '4·19전야 3년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를 발표했다.박 회우는 1958~1960년 국무회의록을 통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7·27휴전 후 전후 복구 사업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수립·산림녹화·수출장려·관광개발·관료체제정비·원양어업·이민·항만시설정비·조선·한국군 해외파견·아파트 건설·도로 상하수도 정비 등 도시개혁 등을 추진, 5·16 군사정권의 산업화 디딤돌을 놓았다고 해석했다.

납북자 가족 기념관 기공식

이태영(전 중앙일보 체육부장·전 KOC위원)회우= 회원이 3천여 명인 6·25 납북자가족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9월 22일 임진각에서 열린 납북자 가족 기념관 기공식 준비로 바쁘게 보냈다. 정부가 건립하는 기념관 기공식 후에는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탈북부부 7쌍 합동결혼식

박선영(전 MBC 기자·전 국회의원) 회우= 탈북자 모임인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인 박 회우는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6월부터 시작한 PRO-COLLEGE를 8월 말일 종강했다. 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탈북대학생 4명도 8월 말 귀국시켰고 탈북 부부 7쌍의 합동결혼식도 올려주었다.

성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재임용

윤재홍(전 KBS 제주총국장) 회우= 경기대 초빙교수로 재임용되고, 성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도 재임용돼 새학기에도 두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 맡게 됐다.

◀ 주 소 변 경 ▶

이 휘 회우= 서울 마포구 독막로42길 5, 101동 204호
(염리동 세양청마루아파트) 핸드폰 010-3644-2523
이창호 회우= 우편번호 04358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 107동 1301호
(산천동, 리버힐 삼성아파트)
최광일 회우=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3, 롯데캐슬아파트 208동 1901호

▶ 회우 경조사 ◀

결 혼

최영태 회우 = 장남 최훈재 군 결혼. 10월 9일(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모 광화문점 LL층(지하 2층) (전화 02- 730-0230)

부 음

최광일 회우 = 9월 24일 모친상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6. 9.1 ~ 9.30)

조희곤(16) 김한봉 (16) 김영효 (16)
홍승국(16,17) 박광춘(17) 장효상(16)
김병모(16,17) 김윤재(16,17)

▶ 바로잡습니다 ◀

신입 회원 이재명 회우(365호 보도)는 전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고 중앙일보 기자로 정정합니다.

6·25 참전언론인회 2016년 정기총회, 박기병 회장 유임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는 9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기병 본회 회우(84세. 사진)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 유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했다.

△회 장
박기병(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부회장
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감 사
이구열(전 대한일보 문화부장)

언론가 소식

제53회 방송의 날 축하연

지난 9월 1일 오후 6시 30분 제53회 방송의 날을 맞아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제 53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불참했지만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신영기금지원 7명 선정

관훈클럽 신영기금은 올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으로 언론인 7명을 선정했다. 지원액은 저술출판에 500만원, 번역출판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연수 지원 대상 3명을 8월 23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1년간 해외에서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지원한 언론인은 모두 96명. 지원액은 월 3000달러의 체제비와 왕복항공료, 학교 수업비 등이다.

고대영 방송협회장 선출

KBS 고대영 사장이 지난 8월 1일자로 제 21대 한국방송협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임기는 2년.

사우회 소식

대학강의 사우 집중취재

KBS 방송 현장에서 활약했던 사우들이 퇴직 후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회우들을 집중 취재했다. 전국 대학에서 초빙, 전임, 석좌, 외래, 겸임, 대우 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회우는 5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총장이나 고문 등 간부도 여러 명. 김준원 회우는 동아방송예술대 부총장, 길환영 회우는 백석대 고문, 서재원 회우는 치의과학대 고문, 이춘재 회우는 김포대학의 대외 부총장이다.

'AGAIN 1등 경향' 캠페인

경향 경향 창간 70주년을 맞아 본사와 함께 'AGAIN 1등 경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옛날의 화려한 명성과 사세를 되찾자는 운동인데 독자 확대 등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역사자료관 소장자료 수집

연우회 연합뉴스가 연합역사자료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9월 1일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 개인이 소장한 소중한 역사자료를 무기한으로 수집한다.

창립 35주년 특집

한경사우회 한경 사우회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회보 특집을 20일자로 발행했다. 특집: 이 슬픔/ 역사는 기억한다, 서광식의 축시와 2016년 정기 총회에서 회원 화합과 단합을 강조한 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본회 편집위원 최병요 칼럼 '남귤북지 이야기'와 4면엔 가보고 싶은 곳, 강화도 기행문 등이 게재됐다.

매달 1회 '영화의 날' 명화 감상

동아일보 동우회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1회 '영화의 날'을 갖고 명화를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명화감상회는 AV시설이 잘 갖춰진 동우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주필 林鍾乾
· 편집위원장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비씨카드도 동참합니다.
비씨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2016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중소 · 중견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활용 및 비관세장벽 분야를 포괄한 현장방문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중소 · 중견기업 120여개사 (업체당 4일 限)

*중국 수출업체 및 중국 수출 희망업체 (선착순 적격업체 선정)

지원내용

한중FTA 활용 컨설팅, 중국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컨설팅

현장방문컨설팅 신 청

★ 필수 ★	선 택		
FTA 활용	FTA 실무	인 증	지식재산권, 계약
한중FTA 활용 방문교육 1일	한중FTA 활용 실무(관세) 1일 限	중국 인증 취득 컨설팅 2일 限	중국 지재권, 계약서 작성 2일 限

신청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fta1380.or.kr

문 의

- 온라인 chinadesk@kita.net
- 전 화 차이나데스크 국번없이 1380